

# 星武

제32호 | 2006. 1.



空軍士官學校總同窓會

# 星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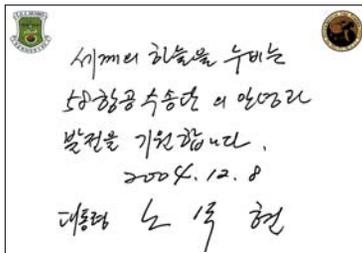
## Contents



공사 교정에 있는 독수리 상징탑



10. 18. 서울에어쇼 2005의 한 장면



이라크에서 작전중인 공군 부대를 순시하시어 남기신 대통령 휘호

- 8 연하장
- 9 신년사

### 공군소식

- 10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 10 F-15K 첫 2대 한국 도착
- 11 T-50 1호기 출고식
- 11 서울에어쇼 2005 개막

### 모교소식

- 12 37대 공사교장 이임
- 12 38대 공사교장 취임
- 13 3군 사관학교 생도 친선행사
- 14 공사생도, 일선부대 체험

### 총동창회 소식

- 15 부대방문
- 16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모임
- 17 신임 공군참모총장 총동창회 방문
- 17 공군사관후보장교회와 친선모임
- 18 기생간 친선 운동모임
- 19 친선 바둑 대회
- 20 총동창회장단 국방부 정책설명회 참석

### 회원기고

- 21 丙戌 智異 日出 | 김영부(공사 13기)
- 22 조종생활을 되돌아보며 | 허두기(공사 7기)
- 25 抗命보다는 越權이 | 장덕수(공사 13기)
- 30 이라크전에서의 비행대대장을 마치며... | 중령 이해원(공사 34기)
- 33 한국항공소년단 출범과 항공인들의 역할 | 이문호(공사 17기)
- 36 문화 탐방기 | 최규순(공사 1기)
- 41 차가운 콜라 한 잔의 감동 | 김종식(공사 13기)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오진교(공사 21기)	45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   장창연(공사 23기)	47
옛날 옛적에   한봉규(공사 29기)	49
편히 쉬시게나!   윤석문(공사 8기)	52
마라톤 행사 견문기   안병걸(공사 20기)	53
나의 시골생활   권희본(공사 13기)	57

**심 터**

몸 안의 독을 풀어주는 해독 음식	60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	63
산행의 육하원칙	65
그놈의 골프 끊어야지	67
결혼 80년 엇 키플 비결은 “여보 미안해”	69
아인슈타인의 강의	70

**각 기생/미주지회 동정**

1~9기 사관	71
13~18기 사관	74
공사 미주 서부지회/뉴욕지회	77

**총동창회 알림**

총동창회 이사회	80
평생회비 적립 현황	82
제13차년도 찬조금 현황	87
전역자 현황	88
결혼/부음	89
주소변경	90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92
“뿌리를 찾아서” 뒷이야기	94
편집후기	95
기고안내	95
총동창회 사무실 주소	95



수원에서 친선모임운동을 가진 16~22기 회장단



친선바둑대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총동창회장



맥아더 동상을 방문한 1기 회원들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임원 일동 드림

## 신년사

총동창회장 이 기 현  
(공사 13기)



희망찬 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공군과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의 큰 발전과 함께, 존경하는 동창회원 여러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13기 사관이 총동창회를 운영해 온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으며, 오늘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느낀 감회는 1기 선배님들로부터 53기 사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삶의 결실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인생의 목표는 비록 다를지라도, 어디선가 ‘무슨? 공사’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사’ 앞에 나온 소리는 확실하게 듣지 못했으나, 우리의 모교인 空軍士官學校를 외치는 소리인가 싶어 가슴 설레이며 귀를 기울이게 되는 ‘우리는 영원한 空士人’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선후배간이며, 공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공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空軍人’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 공군과 모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공군과 모교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Noblesse Oblige’ 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우리 공군과 모교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저희 13기 사관 일동은 모두가 힘을 모아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초지일관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丙戌年 새해에도 동창회원 여러분과 각 가정에 큰 행운이 함께 하시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 1. 1.

##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2005년 10월 7일 오전,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 임석하에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제29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김성일 대장(공사20기)은 취임사에서 전략형 공군력 건설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매력있는 공군추진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며, 한편 이임하는 이한호 전임 총장(공사17기)은 이임사에서 국방개혁의 추진에 전 공군인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F-15K 첫 2대 한국 도착

공군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F-15K 40대 중 첫 두 대가 2005년 10월 7일 한국에 도착했다. 두 대의 F-15K 중 한 대에는 F-15K의 전환 및 교관훈련을 받은 8명의 우리 조

종사 중 만형격인 이영수 소령(공사38기)이 탑승하여 F-15K의 작전반경과 장거리 전술비행 능력을 직접 확인하였다.



## T-50 1호기 출고식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일명 금독수리, Golden Eagle)의 양산(量産) 1호기 출고식이 2005년 8월 3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앞으로 A-50 공격기(T-50에 무장을 갖춘 기종)가 개발되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우리 공군은 최신에 무기 체계를 갖춘 첨단과 학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에어쇼 2005 개막

“서울에어쇼 2005” 개막식이 10월 18일, 서울공항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과 정부 주요인사, 국내·외 항공 및 방위산업 관계자 등 초청 귀빈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특히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급 귀빈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또한 전 세계 24개국 225개 업체가 참가하여 아·태지역 최고의 항공비즈니스장이 되었음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 37대 공사교장 이임

제37대 공군사관학교장인 김명립 중장(공사19기)의 이임식이 2005년 10월 4일 오전,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김 교장은 지난 2003년 10월 교장으로 보임한 이래 2년 동안 공사를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군사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겼으며 이임 후 대장으로 승진하여 합동참모회의 차장으로 영전하였다.



## 38대 공사교장 취임



제38대 공군사관학교장에 이찬 중장(공사21기)이 취임하였다.

신임교장은 2005년 11월 8일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참모총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받고, 항공우주 시대의 주역인 정예 사관생도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3군 사관학교 생도 친선행사



2005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육·해·공사 4학년 사관생도들이 공군사관학교에 모여 각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관생도간 우의를 다지는 친선행사를 개최하였다.

3군 사관학교 친선행사는 미래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3사 생도들이 각 군을 직접 체험하면서 서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가을 각 학년별로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이번 행사기간 동안 2학년 생도들은 육사에, 3학년 생도들은 해사에 모여 친목을 다졌다.



## 공사생도, 일선부대 체험



하계휴가를 맞이한 생도들이 2005년 8월 1일부터 1박 2일간 영공방위의 최전선인 공군 전투부대를 방문, 일선부대의 임무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체험훈련은 장차 공군의 핵심 지휘관으로 성장할 생도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군사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선배 장교와의 현장 만남을 통해 군 작전의 이해와 예비 장교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부대방문



총동창회 회장단은 총회 운영업무 인수 후 인사차 2005년 7월 20일에 작전사령부와 공군사관 학교를 각각 예방하고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8월 2일에는 공군본부를 예방하고 공시발전기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18전비를 방문하여 부대장병을 격려하였다.



##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모임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이 상호 친목과 현안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2005년 9월 15일 공군 회관에서 1차 모임을 가졌고, 이어 11월 2일에는 육사 화랑대에서 2차 친선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군 총동창회는 활동상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

며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활동하자고 뜻을 모았다.

- 국방개혁과 군 구조 개편으로 조기 전역하는 동문과 예비역들의 취업 등 진로 문제는 총동창회에서도 함께 돕도록 노력한다.
- 현역의 총동창회 회원가입 등 총동창회의 발전방향을 국방장관 예방시 공동으로 건의한다.
- 안보평가회의 등 국가안보 관련 회의, 세미나, 강연 등은 향후 3군 사관학교 동창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시는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전 회원이 힘을 합쳐 대처한다.
- 예비역은 현역의 미래 모습이므로 예비역과 현역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비역에 대한 현역지휘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 신임 공군참모총장 총동창회 방문



2005년 10월 12일 공군참모총장 김성일 대장이 신임 인사차 공군전우회와 총동창회, 그리고 관련 예비역 단체를 함께 방문하여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본회는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신임 참모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성원할 것임을 전했다.

## 공군사관후보장교회와 친선모임

2005년 9월 24일 총동창회 전임 및 현 회장단은 공군사관후보장교회와 수원 체력단련장에서 친선모임을 가졌다. 송영수 공군사관후보장교회 회장(전열 가운데)은 과거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모교와는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 기생간 친선 운동모임



10월 27일 공사 16기~22기생 회원들과 총동창회 회장단이 함께 수원 체력단련장에서 친선 골프모임을 가졌다.



참석한 회원들은 모처럼 기생간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총동창회 운영, 평생회비 납부 및 적립,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 친선 바둑 대회

2005년 11월 17일 공군회관에서 총동창회 주최 친선바둑대회가 개최되었다. 기우회 고문인 윤지중 전 총장 등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바둑도 즐기고 회원들간에 친목도 다지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특히 이번에는 작년도까지 수고해주신 고 김수영 7단에 이어 친동생인 한국기원 프로 기사 김수장 9단이 참석하여 개인 및 다면 지도기를 가져 대회 분위기를 더욱 드높여 주었으며 앞으로 총동창회 기우회 지도사범이 되어 주기로 하였다.

조별 우승/준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조(1~6기) 송기철(5기)/김태계(6기)  
 B조(7~10기) 송중호(10기)/김수호(7기)  
 C조(11~16기) 이규형(11기)/박진재(14기)



## 총동창회장단 국방부 정책설명회 참석



이기현 회장을 비롯한 공사 총동창회 임원 6명은 11월 25일 윤광웅 국방부장관 주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임원을 위한 초청·정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국방부장관이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부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국방정책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2020년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안은 우리 군이 건군 57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해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이라며 “이 개혁안을 1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한민구(육군 소장) 정책기획관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을 중심으로 각종 국방 정책과 이라크 파병 등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임원들은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국방개혁 추진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주요한 내용은

- 국가정체성과 안보의 문제
- 예비역 자원에 대한 국방부 차원에서 활용방안 검토
- 현역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 및 회원으로서의 활동 범위
- 동창회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이날 설명회에는 김명립(공군 대장) 합참차장 등 국방부·합참 관계자들과 이정린 육사 총동창회장, 하종근 해사 총동창회장 등 3군 사관학교 동창회 임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丙戌 智異 日出

김영부(공사 13기)

開花 前線은 耽羅에서 오고  
寒雪 바람은 白頭에서 불어  
삼천리 길 晋州에 이르렀네.

간밤 紗羅눈보라 지나더니  
나락 텃 빈들 白雪로 덮이고  
감나무엔 까치밥만 남았네.

藍靑 晴天 畫板에 靑松 雪花  
촉석루 위 論介 달 영롱하고  
그 많은 별들 다들 예 모여 사네.

紫明 海東 水平은 日出 채비  
잘 익은 黃金 유주 붉은 속살  
輝煌 雲霧 뚫고 솟아오르니

驚異의 함성 天關이 열리고  
國氣 發源 天王峰 빛 發하니  
送西 迎戌 國運 瑞光 보이네.



필자주 : 병술년 벽두 동기생 4명과 진주-총산리-법계사-천왕봉-백무동 코스로  
지리산을 등반하다. 밤새 눈보라가 쳤으나 새벽녘에는 날이 개어 천왕봉에  
올라 설경, 일출을 보며 국운을 빌다.

## 조종생활을 되돌아보며



허두기(공사 7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1955년 3월 1일 공사 7기로 입교한 나는 입교에 앞서 대전 소재 공군항공병학교에서 소정의 가입교 위탁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제반 기초군사훈련과 학술교육과정에서 열심을 다한 결과 수석의 영광을 안고 수료하게 되었다. 곧바로 진해 소재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간의 이학사 과정에 들어갔고 우여곡절의 추억을 남기며 졸업하였다. 당시 진해 교사는 휴전 직후의 임시 가교사로 겉모양이 마치 방직공장과 흡사한 열악한 가건물로 천자봉 기슭에 자리 잡은 왜소한 시설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졸업 후 초등비행은 조종 31기로 사천의

제3훈련비행단에서 시작했다. 입과하면서 비행사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대비한 유언장을 썼던 기억이 새롭다. L-19를 마치자 T-6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불행히도 동기생 두 사람이 순직하였다. 동기생의 첫 순직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했고 인생의 허무함을 실감하게 하였다. 조종사로서의 험난한 시련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의 고된 훈련과정에서 하나 둘 탈락자가 나오고 수료할 즈음에는 그 비율이 약 15%에 이르렀던 기억이 난다.

T-6를 마치자 1960년대 초 대구의 중등과정에서 입과하게 되었는데 propeller에서 jet로의 전환이라 긴장 속에 모든 지상학과를 끝내고 첫 관속비행을 위해 T-33A에 탑승하려는 순간 갑자기 공군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도미유학시험에 응시하라는 통지였다. 미 공군 Primary Jet Training Course(초등훈련과정)와 더불어 Basic Course(중등비행과정), 그리고 Advance Course(고등비행과정)의 미 공군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2년의 비행과정이었다.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지는 절호의 기회였다.

1960년 3월 9일, 꿈에 그리던 미국행 프로펠러 4발기 ONA(Overseas National Air-line)에 몸을 실은 일행은 5기 김동섭, 7기 광영달, 박기순, 김동휘, 그리고 나를 포함 5명이었다. 일본 타치가와 기지를 경유, Wake, Midway, Hickham(Hawaii)을 거쳐 Travis 공군기지(San Francisco)에 안착하였다. 다시 Texas의 San Antonio까지는 소위 Pullman 침대 기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San Antonio 소재 Lackland 공군기지에서 1개월 반 정도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은 후 Spence 기지(Georgia주)에서 본격적인 초등비행 훈련에 임하게 되었다. 62A Class로서 T-34 및 T-37 기종으로 초등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Reese 공군기지(Lobuck, Texas)에 보임되었다.

거기서 중등과정에 입과하여 T-33 기종을 수료함으로써 명예의 Silver Wing(조종훈장)을 수여받았다. Wing을 패용한 이후부터는 조종사로서의 긍지와 예우가 현격히 달라짐을 보면서 그 보람을 새삼 느꼈다.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Wing이었단가? 강당에서, 또 구름위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결실이 아닌가? 값진 보석보다 더욱 가치가 있는 이 Wing이야말로 내 생명을 내걸고 이루어낸 최고의 전리품을 쟁

취한 기분이라고나 할까, 좌우간 어린 시절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단계인 고등훈련과정을 밟기 위하여 Luke 공군기지(Phoenix, Arizona)에서 F-86F 전투기 기종전환이 시작되었다. 주로 대지사격 및 공중사격을 집중훈련하면서 전투조종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는 황야에 펼쳐진 표적(탱크, 트럭 등등)들을 공격하는 실전과 같은 전투작전훈련을 감행함으로써 전투기 조종사의 담력과 기술을 길러주는 과정이었다.

부여된 임무에 따라 저고도 비행 중 전화선을 끊는 동료도 있었고 너무 낮게 비행하여 고도판단 착오로 지상표적과 충돌하여 순직한 사례도 있었다. 전투조종사의 삶이란 순간순간 생과사를 연속적으로 넘나드는 인생이라고나 할까?

마지막 관문인 고등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그림턴 고국에 돌아와 수원 제102전투비행대에 배속되었다. 그 당시 비행사고가 자주 일어나 전력손실이 우려되던 때였다. 사고방지책의 일환으로 F-86F 기술교범을 번역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공군최초의 한글번역판을 발간함으로써 그 동안 잘못 인식된 기술교범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얼마 후 대구기지 제1훈련비행단에서 공사 12기부터 15기에 이르기까지 비행교관 및 훈

육관으로 후배양성에 임하게 되었다.

F-5 도입에 따라 105대대에서 기종전환 후 제일선에서 비행하던 중 당시 간첩선의 빈번한 야간 침투로 소위 구서작전(Skunk Operation)이 시작되었는데 1971년 6월 1일 이른 새벽 03:50경 서해 흑산도 근해에서 해군함정이 포착했다가 놓친 간첩선을 격침하기 위한 출격명령이 떨어졌다. 작전지역으로 레이더 유도비행 중 3시 방향에 물줄기가 보여 확인 차 "ID pass"를 시도하는 순간 그 물줄기가 지그재그를 그리며 중국본토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선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물줄기 상방을 조준하여 3차례에 걸쳐 LAU3를 발사하자 순간 대공포화로 보이는 불빛이 마치 flash light같이 연속으로 번쩍거렸다. 네 번째 공격에 그 물줄기가 사라지면서 선체가 희미하게나마 눈에 들어왔다.

작전임무를 끝마치고 기지로 귀환하기 위하여 고도를 취하면서 잔여연료를 check해 보니 놀랍게도 귀환연료 부족이 아닌가? 즉각 최고순항고도인 33,000ft로 상승하면서 Emergency Fuel Call 후, GCI-GCA로 기지귀환을 시도하였다.

망망한 바다 위에서 생명줄에 매달리듯 연료가 점점 줄어갈 때마다 마치 피가 마르는 순간들을 이기며 식은땀으로 목욕하듯 온몸이 젖고 있었다. 비상연료등이 켜진 상태에

서 비행하는 심정은 마치 내 피를 태우며 날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을 뚫자마자 그야말로 구사일생, 곧바로 활주로 끝에 접근하여 안전하게 착륙하였다. 이 순간의 환희야말로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고야 그 누가 알겠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잔여연료로는 도저히 귀환할 수 없는 비행거리를 날 수 있었던 것이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 당시 성충권의 제트기류가 110 knot의 배풍으로 불어 주었던 것과 위기상황에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훈련으로 다져진 강한 정신, 더하여 매 순간 적절한 지혜와 판단을 가능케 해준 보이지 않는 초능력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 抗命보다는 越權이(생도훈육 뒷이야기)



장덕수(공사 13기)

사관생도들에게 훈육담당관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그리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눈물겹도록 인정스러워 생도들을 감동시키던 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군대의 통념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생도들을 힘들게 하는 훈육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쫓고 쫓기는 정떨어지는 관계라면 표현이 좀 지나치겠지만 하여간 생도와 훈육관의 숙명적 관계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이던 시절, 더구나 최고학년이 왕 노릇 하던 때의 사관학교는 온통 4학년 세상이었고, 각종 위반 또한 4학년이 도맡아 저지르는 부조리를 부인할 기생은 많지 않으리라.

생도교육에서 훈육담당관이란 지금도 그렇지만 제도상 생도대장(이전에는 생도전대장) 밑에 대대장, 그 아래로 중대장(이전에 편대장)이, 그 밑에 훈육관이 있는데, 나도 소령 시절에 편대장을 해 보았다. 훈육담당자들은 대체로 4학년을 ‘눈에 가시’로 보고 온갖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면 장교와 최고학년 사이의 관계는 부드럽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어서 하급학년은 더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요새는 좀 나아졌을 터이나 하여간 옛날에는 생도들이 하루를 사는 것이 그랬고, 소위 내무생활의 북새통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사관 출신은 ‘위대하다’ 싶다.

내가 편대장을 맡아서도 시작부터 4학년과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지만 어쨌거나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그 편대장 시절이 내 공군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보람찬 시기였다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까? 미운 털이 박힌 4학년이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의 대화상대가

되었고 그렇게 4학년들과 어울리다가 뒤늦게 '후배학년에도 저런 훌륭한 생도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미안한 생각을 할 정도로 주로 4학년하고 놀았던 셈이다.

자랑인지 반성인지는 모르나 어느 날 4학년생도 하나가 조용한 면담을 요청해서 마주 앉았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휴가로 시골집에 갔다가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 급기야 임신까지 시키게 되었다. 문제는 상대방 부모가 결혼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사관학교에 통보를 하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일은 사람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사관학교에서는 그 사실이 일단 공개되면 거의 예외 없이 퇴교라는 극단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 그때까지의 관례였고 그 후로도 상당기간 그랬다.

기가 막히는 것은 이 4학년이 퇴교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편대장인 내 앞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그 생도는 그런 현실을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야위어 가자, 견디다 못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졸업할 때까지 적당히 쉬쉬하면서 장교가 된 후 결혼하면 문제될 게 없었음지도 모르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는 결코 자신의 결혼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럼 왜 그 따위 짓을 했느냐'는 질책은 아

무 의미가 없는, 바로 코앞의 절박한 문제가 퇴교여부 아닌가?

그 당시에 나도 꽤나 고지식하고 깐깐한 장교로 소문이 났다면 난 사람인데, 겁도 없이 내 면전에서 그런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는 그 친구가 나를 '물'로 보았나 싶기도 했지만 그게 살 길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냈을 거라 싶으니 인간적인 연민과 책임이 느껴졌다. 조건을 초월한 사랑과 결혼을 나는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생도 본인이 그 여자가 '결단코 결혼상대는 아니'라니 어찌겠는가. 생도규정이요 명예제도고 뒤로 제쳐 두고 우선 문제를 풀어야 했다.

그래서 우선 "외출 나가 시골 가거든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일단 해서 사관학교에 통보가 오는 사태는 막고 보자고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임관 후 결혼까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비행교육 등-로 몇 해는 기다려야 하니 뱃속의 아이는 좀 안 됐지만 적절히(?)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오라고 아울러 조언을 해 주었다. 적당히 임관까지 버티다가 어거지로 결혼을 한들, 두 사람이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뒤로는 가능한 한 그 여자를 자주 만나지 말고, 그러구러 세월이 좀 흐르면 각자 제 갈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그 생도와 함의를 본 것이다. 편대장으로서 월권일까, 직무유기일까. 하여간 그

렇게 일단은 조용히 해결이 되었고 그 생도는 졸업 후 고급장교가 되도록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그 사건이 일시적 실수일 뿐 엄청난 인격적 결함에서 저질러진 일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4학년 한 사람이 외출문제로 나를 찾아왔다. 생도들에게는 지금도 외출, 외박보다 더 한 가치가 이 세상에 달리 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런데 나를 찾아온 그 4학년의 외출요청은 특별했다. 외출시간을 하루만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 내용은 이랬다. 그가 간호사 여자를 사귀는데 이미 양가가 다 아는 사실상의 결혼대상자였다. 그런 여자가 곧 서독으로 3년간 일하러 가게 된 것이다. 그 주말에 가서 만나지 못하면 3년 동안 서로 못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의 집이 멀리 남쪽 지방이어서 당시의 기차로 근 8시간을 가야했다. 토요일 오후에 외출을 나가면 곧바로 기차를 타도 도착이 밤늦은 시간이라 만날 수가 없고, 그 다음날은 얼굴을 보기는 커녕 곧장 기차를 타야 귀영시간에 겨우 맞출 수 있을 정도다.

당시에는 토요일 오전 일과가 대체로 내무 일과여서 편대장이 이를 면제할 권한이 있지만 그래봐야 불과 몇 시간의 여유를 더할 뿐 3년이나 헤어져야 하는 연인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감질나는 시간이라 금요일 밤에 외박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금요일 밤새

도록 기차를 타고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여 하루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일요일 또 종일 기차타고 오겠다는 것이다. 토요일 아침이나 그 전날인 금요일 밤이나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라 내 보내줘도 그만인데도, 공교롭게도 생도규정상 금요일 밤 외출은 이게 '특별휴가'가 돼서 그 허가권자가 편대장이 아니라 그 위의 상관이라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편대장인 내가 상관에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뭐냐 하면, 서로 헤어질 때 얼굴도 못 보고 3년간의 장교생활을 견뎌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인가 싶은 그 생도의 심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이번에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관에게 건의를 했을 때, “좋아, 내 보내” 해 준다 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만에 하나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돼”라고 상관이 거부해버리면 내가 그 생도를 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항명’ 밖에. 상관에게 아예 건의조차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금요일 밤에 내 보내면 그건 허가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가 되어 책임문제야 생기겠지만 그래도 좌우간 ‘내 보내줄 수’는 있지 않은가? 그런데 상관이 이 외박을 결코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까닭이 있었다. 뭐고 하니 그 얼마 전에 내가 잠시 부대정문을 지나다

가 강릉에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초라한 행색으로 1학년 첫 면회를 와서 갑작스런 면회금지 조치에 넋을 놓고 있는 학부모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기간에 생도들 사이에 모종의 일이 생겨 생도전대가 소위 <군차려> 중이라 일체의 면회가 중지된 상태였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가 강릉에서 서울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면회를 온 것이다. 나는 면회중지를 미리 알리지 못한 사관학교 책임도 있다 싶어 정문 초소에 들어가 상관에게 직접 전화로 “면회불가 사전통보를 못한 학교 책임도 있으니 면회는 혹 안 되더라도 음식이라도 받아서 나중에 먹게 해주는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건의를 했다. 그랬더니 촌각도 주저 없이 돌아온 대답이 “안 돼, 고등학교도 면회금지면 그만인데 사관학교에서 무슨 소리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때 그 분의 군인다움 밑바탕에 깔린 냉정함에 만정이 떨어지던 기억이 나서, 그 외출상신도 보나마나 “군인이 무슨 소리아”로 결판날 것을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부터 내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내가 큰 손해 보지 않고 성공적으로 내 보내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옆에 있던 후배 편대장은 “별 걸 다 가지고 고민하네요. 상신해서 안 되면 그만 아닙니까?”라며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젊은 연인들의 간절한 만남을 그렇

게 박살내고서는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못 벗어날 것 같았다.

마침 계획표를 보니 당일인 금요일에 대대장이 <유지비행>차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닌가? “옳지, 잘 하면 무지막지한 월권행위라는 비난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장한 각오로 그 생도를 금요일 일과 후 외출을 내 보냈다. 이런 내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생도는 희색이 만면해서 애인 만나러 고향으로 떠났다.

그 다음날인 토요일 아침에 전대장에게 직접 일과보고를 하는 전대장 생도가 내게 찾아와 “전대장님 보고시 그 4학년 생도의 외출시각을 금요일 저녁으로 할까요? 아니면 토요일 아침으로 할까요?”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전대장 생도 보고일지에 외출시각을 토요일 아침으로 기록하면 이 특별외출은 편대장의 허가사항에 해당됨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래서 한 주 내내 고민할 하등 이유가 없는 매끈한 일 처리가 되는 것이다. 유능하다고 선발된 전대장 생도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쯤은 알고도 남을 나이의 생도들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강한 유혹을 느꼈다. ‘그래 이렇게 끝내자’ 하는 생각이 왈각 솟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명예제도를 강조하는 사관학교에서 버젓이 거짓기록을 전대장 생도에게 지시하는

짓거리를 편대장이 자행할 수는 없다 싶어서 “금요일로 기록하라”고 지시해서 내보냈다.

그 토요일 오전 내내 나는 솔직히 불안에 떨었다. “그 특별휴가 생도는 대대장이 허가했나?”하는 전화가 전대장실에서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일요일에도 불안은 계속되었고 대대장이 유지비행에서 돌아와 출근한 월요일 오전에는 그 불안이 극에 달했다. 조마조마하게 월요일 오전도 무사히 지나갔다. “잘 하면 이 정도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살아났다. 상상컨대 전대장생도의 일과보고를 결재하면서 전대장은 ‘아마 대대장이 유지비행 가기 전에 특별휴가를 허가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대장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대장이 허가했을 거라고 짐작하며 넘어갈 수 있겠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았다.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런데 드디어 월요일 늦은 오후 대대장이

전화로 나를 호출했다. 이 일은 그렇게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나의 상상대로 생각했을 전대장과 대대장이 월요일 오후까지 별 의문 제기 없이 지난 모양인데 뒤늦게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전대장이 먼저 “그 특별휴가는 대대장이 보냈지요?”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대대장이 “아니 제가 유지비행 갔을 때 전대장님이 보내 신 거 아니에요?”하고 되물은 것이다. 모든 게 탄로 났고 불려간 나는 대대장 앞에서 나의 명백히 고의적인 월권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을 포함하여 몇 가지 상급자와의 갈등이 겹쳐서 당시 내 장교 인사평정표에는 “군인 장교로서는 적성이 아니다”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되었고 내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지만 외출 나간 그 4학년 생도는 기억에도 없는 일일 것이다. ♠



## 이라크전에서의 비행대대장을 마치며...



중령 이해원(공사 34기)

2004년 7월 공군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결정된 후, 비행대대장으로 정예 조종사들을 이끌고 전장지역으로 전개하여, 이라크 전장에서의 항공작전을 한 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자부심과 이를 가능하도록 대대장을 따라준 조종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이제 전장에서 근무했던 자랑스러운 날들을 정리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

파병 전 새로운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C-130항공기에는 전장위협에 대비한 신장비가 장착되었고, 조종사들은 주어진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비를 이용

한 전술개발 및 기존 전술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별도의 비행훈련을 완벽히 소화하였으며, 한 달여간의 파병요원 소집교육과 창설식을 거쳐 드디어 2004년 10월 12일 우리는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이역만리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기지를 향하여 우리의 愛機인 C-130H 항공기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났었다.

모든 파병요원들이 그렇겠지만 나 역시 이곳 주둔지에서 부딪히게 될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역시 이겨내야 할 힘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조국과 공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개인에겐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 나로 하여금 굳은 각오를 다지게 했었다.

2박 3일, 약 20여 시간을 비행하여 필리핀, 태국, 인도를 거쳐 다소 지친 상태에서 '알리 알 살렘' 기지에 도착하였는데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마중 나온 미 386원정비행단

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관, 참모 및 민항기로 먼저 전개한 58항공수송단 장병들의 따뜻한 환대로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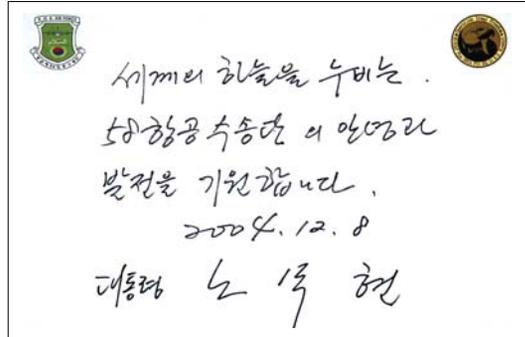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는 최고 무더위 계절(5월~9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지형의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한국 주둔지역의 숙소와 식당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미군 텐트와 식당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비행대대요원들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빠른 비행임무적응을 위해 하루의 휴식 후 곧바로 전장에서의 비행절차, ITO SPIN, 이라크 전장정보 등 각종 필수 숙지 절차들을 교육 받았고, 교육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야간까지 자체 전술토의를 실시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비행절차를 정립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결실로 현지 도착 후 열흘만에 이라크 아르빌지역으로의 첫 항공 작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 첫 임무를 위해 이곳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를 이륙하여 이라크 전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장의 긴장감과 함께 삭막한 이라크 지형이 한 눈에 들어왔고 약 2시간을 비행하여 도착한 아르빌 기지 상공에서는 그동안 훈련해온 적 지대공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기동을 통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

다. 아르빌은 이라크의 북쪽 끝단에 위치한 지역이라 육상 교통수단으로는 왕래하는데 수 일이 소요되고 이라크 중심지역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적 지상위협을 감수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었고, 착륙 후 대한민국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C-130 항공기를 보고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느낀 자이툰부대 병력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렇게 성공적인 첫 임무수행을 기점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임무를 실시하였는데, 임무는 아르빌 지역의 자이툰 사단 지원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한편, 바그다드를 포함한 이라크 전구 내 여러 지역을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있는 동맹국 임무로 완벽히 수행하였다. 또 차후 임무에 대비하여 기존의 기본절차를 계속 유지한 채, 자체적으로 전술토의를 거쳐 조금씩 일부절차를 개선/보안시켰으며, 전술정보를 통해 각 기지별 전술 입·출항시 취약점 및 위협요소를 비행 전 재검토하여 최적의 전술방법을 모색하는 등 우리 대대원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04년 12월 8일 우리는 대한민국 C-130 공군 조종사로서 생애 잇을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동방작전’이라 명명된 대한민국 대통령임무를 이곳 이라크 전장에서 수행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임무가 아닐 수 없었고, 모든 비행대대원이 이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임무 외에도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등 여러 VIP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영광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바그다드 임무 중 우리는 여러번의 지대공 위협을 받았지만 MAWS 경고에 따라 전술회피기동을 실시하고 FLARE를 발사하는 정확한 전술대응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 12월 29일에는 이라크에서 임무를 시작한 후 100회 출격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2달여 만에 이룬 성과였으며 같은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에 비해 동 기간 2배가 넘는 임무성적을 보였는데, 비행대대원 모두가 짧은 기간에 적응을 실시하여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 그리고 올해 8월 9일 개인적으로 이라크 전장 100회 출격 기록을 수립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오직 나에게 매번 부여되는 임무는 항상 첫 임무라 생각하고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막의 모래바람과 언제 어디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비행한 후배 조종사들과 악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최상의 상태로 정비해준 정비사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내준 대한민국 국민들과 공군가족들에게 작전요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저는 1년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위험한 전장에서 항공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작전요원들이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

## 한국항공소년단 출범과 항공인들의 역할



이문호(공사 17기)

우리 모든 항공인들의 오랜 과제였던 한국항공소년단(Young Falcons of Korea)이 지난 8월 2일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로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항공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안보는 물론 경제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역사가 시작된지 어언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공기 수출국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훈련기를 만들었고, 우리공군은 세계제일의 전투기인 F-15K가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막강한 공군이 되었으며 200여 대의 민간항

공기가 전 세계를 누비는 항공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소년단 창단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항공우주력에 걸맞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능력있는 항공과학인재를 키우는 것이 국가와 우리 항공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이한호 전 공군총장의 의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05년 5월 이한호 총장과 뜻을 같이한 항공우주산업 정해주 대표이사, 한서대학교 함기선 총장, 항공회 김경오 총재가 모여 공군이 마련한 항공소년단 창설안에 합의하고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지난 7월 13일 평소 항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임원진으로 구성한 후 한국항공소년단 창립총회 및 발기대회를 공군회관에서 성공리에 개최하고 초대 총재에 전 통상산업부장관을 역

임한 바 있는 항공우주산업 정해주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22일에는 한국항공소년단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발대식을 서울에어쇼가 개최된 서울공군기지에서 예쁜 단복을 차려입은 항공소년단원과 학부모와 선생님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항공소년단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뒀을 뿐입니다. 출발은 늦었지만 힘차게 비상해야 합니다. 기존의 청소년단체와 차별화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활기찬 단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과 달리 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항공인들이 힘을 합쳐서 항공소년단을 지원하고 성원할 때만이 정부, 기업과 개인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소년단에서 체험시킬 주요 프로그램

은 비행시뮬레이션 훈련, 항공생리체험, 항공기 탑승체험, 항공우주관련 산업체 견학 등 항공체험 프로그램과 전통 연이나 카이트 제작 및 날리기, 행/패러글라이더 비행, 열기구비행, 스카이다이빙, 초경량항공기 및 경비행기 비행 등의 항공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종이비행기 및 글라이더 제작, 모형항공기 제작 및 날리기, 초소형 비행체 및 무인항공기 경연대회 등 항공 탐구 기능훈련 프로그램과 영 이글 프로그램 참가, 국제에어쇼 참관, 외국 항공사 견학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학년에 맞게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과 우주를 사랑하는 모든 항공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군과 민항, 항공기를 제작하는 산업체와 항공우주관련 대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항공관련시설 등을 항공소년단원들에게 과감히 개방하고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와 항공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항공소년단을 창설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항공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미국의 항공소년단(Young Eagles)과 같이 항공분야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항공전문가들은 자원봉사단에 가입하여 항

공소년단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항공 지식을 들려주고,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분야에서 근무하면서 배우고 터득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가장 보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항공소년단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단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후원입니다. 현재 정부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부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후원이라도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항공인이 항공소년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친지들 자녀에게 항공소년단에 가입하도록 홍보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자원봉사단에 가입도 하시고, 또한 많은 후원을 해 주시어 우리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사상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필자 : 항공소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 [www.yfk.or.kr](http://www.yfk.or.kr)

전화/팩스번호 : (02) 953-7543~4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6-81(4층)



## 문화 탐방기



최규순(공사 1기)

1기 사관은 매월 모임을 갖고 지역의 문화를 탐방하고, 좋은 먹거리를 찾으며 건강을 위한 온천욕(해수, 사우나 등 포함)은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1기 사관은 머지않아 80대의 나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보고 최소 5년 동안은 건강 유지를 목표로 매월 화목과 건강을 위한 모임을 즐겁게 갖고 있다. 모임 인원은 16명에서 21명 내이며 거의 21명이 다 모이는 100%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서남단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먹거리 탐방을 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2일 09:00 지하

철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로 나와 서초 구민회관 앞에서 모여 전북 고창(선운사), 영광 범성포, 목포 유달산과 목포 자연사 박물관(박화성 문화기념관), 해남의 땅끝 마을 등의 유명지 탐방과 자연과 먹거리 찾아보는 코스로 정하였다. 관광버스는 최신형 회의용 탁자가 설치된 리무진 관광버스로 하고 기사는 그 회사 1급 기사로 안전하게 동기생을 모시는 것으로 했다.

동기생 일행은 윤자중, 김영환 동기를 비롯하여 17명 동기와 일본서 일부러 참석하기 위해 오신 김덕태 교관과 합류, 정시인 09:00에 출발하여 경부 고속도로 신갈 주차장에서 수원에 거주하는 이교안, 백만길, 이관모 동기를 태우고 평택 I.C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 도중 휴게소에서 차 한잔 후 12시를 지나 영광 범성포에 도착했다.

범성포 항구는 반달 모양의 자연항으로 이 조 때부터 영광굴비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영광굴비가 유명한 것은 4월~5월에 조기잡

이가 한창일 때 범성포 항구는 조기잡이 배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영광굴비의 묘미는 조기에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는데 소금은 굴비가 짜지 않도록 소금양을 조절하는 것이 으뜸 기술이고, 바람에 말리는데 범성포 일대는 말리는 동안 파리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유명하다. 항구가 반달 모양에 지형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리도 없고 벌레도 없어 한국에서 유일하게 깨끗하게 말리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영광군 범성면 범성리 범성포 항구에서 영광굴비 한정식으로 유명한 “일번지”(남도 음식 명가) 식당 2층에서 굴비 한정식을 주문하니 굴비 찜, 구이, 매운탕 등에도 30여 종의 반찬이 다양하게 나왔다. 그저 놀라 감탄을 연발하며 영광굴비의 참 맛을 마음껏 느끼며 즐겁게 먹고 “일번지” 식당 김영식 사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목포로 향했다.

목포에 도착하여 우선 유달산 문화 탐방에 나섰다. 노령산맥의 서남단 끝자락에 위치한 유달산은 기암괴석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목포 시내와 다도해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목포의 명산이다. 먼저 유달산 공원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안내원에게 부탁하니 서울서 큰 할아버지들이 오셨다고 해서 안내 책임자가 직접 나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이 전해 내려오는 노적봉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었다. 노적봉 뒤 건너편에는 쥐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노적거리 앞에는 쥐가 산다는 풍수설에 의해 “쥐바위”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있는 조각공원으로 향했다.

이 공원은 1982년 10월 개원한 국내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으로 이들 바위 아래 시가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1만 4,500평 부지에 작품 78점이 유달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목포의 명물 중의 하나이다. 공원 내에 있는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찾아갔다. 일제의 탄압에서도 우리 국민의 고유한 정서와 애절한 한을 담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 씨와 가사를 쓴 문일석 씨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9년 6월에 세워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애절한 감회가 남다르다.

다음 탐방은 소영 박화성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유달산 자락 목포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은 목포자연사 박물관(박화성 문화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1기 동기인 손주현 장군의 장모가 소영 박화성 선생(고인)이시고, 또 우리들이 소영 박화성 선생의 작품을 추모하고 존경하며 그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영광과 기쁨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로서의 또 하나의 행운은 목포 자연사 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소영 박화성 추모 문학제(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가 성대히 끝난지가 며칠이 안돼 생생한 작품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로 탄생 101주년을 맞아 의미를 더하는 이번 추모 문학제는 한국 근대 문학의 개척자로서 끊임없는 문학을 향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우리 문학사에 우뚝 선 선각자이신 소영 박화성 선생의 문학사적 의의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기리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 일부분만 아래에 소개할까 한다.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니 고향을 떠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게. 앞만 바라보고 호랑이 같이 사납게 나가보세. 알아들겠는가? 동무들에게 이 뜻을 전해주게...”*

(“고향없는 사람들” 중에서 - 1935년 작품)

목포를 뒤로하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 경 한국 최남단인 땅끝 마을(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사자봉 땅끝이다.) 갈두산에 도착했다. 땅끝인 사자봉까지는 올라가는 도로가 전부 계단으로 되어있어 15분~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전부가 70대를 넘다 보니 올라가는데 힘들었는데 땅끝 마을을 밟아야겠다는 집념으로 한 명도 낙오없이 사자봉 정상에 있는 10m 높이의 땅끝 탑까지 오르게 되어

상쾌함과 감개무량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었다. 땅끝 유래 비목을 보면 “이곳은 한반도의 최남단으로 북위 34도 17분 21초의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사자봉 땅끝이다.” 한중동국여지승람 만국 경위도에서는 우리나라 전도(全圖) 남쪽 기점을 이곳 땅끝 해남현에 잡고 북으로는 함경북도 온성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또 육당 최남선의 조선 상식 문답에서는 해남 땅끝서 서울까지 천리, 서울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는 2천리로 잡아 우리나라를 3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였다. 오래전 대륙으로부터 뺏어내려 온 우리 민족이 이곳에서 발을 멈추고 한 겨레를 이루니 역사 이래 이곳은 동아시아 3국 문화의 이동로이자 해양문화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땅끝 탑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수십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가 아름다움의 극치였으며 땅끝탑은 한반도의 남쪽 끝머리이면서 해양과 대륙 문화의 시작을 동시에 상징하는 땅끝과 우리 국토와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높이 10m의 땅끝탑을 세우고 소백산맥에서 내리 솟은 마지막 봉우리인 사자봉 정상에 전망대를 건립하여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감탄케 하고 있다.

사자봉에서 하산하여 땅끝 마을에서 자연산 횡집으로 소문난 “땅끝 바다 횡집”으로 향했다. 원래 계획은 해남읍에 있는 떡갈비

정식으로 이름난 식당에 예약했었으나 숙소가 땅끝 마을이라 해남읍까지 왕복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예약을 취소하고 최고 회정식으로 변경하여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다. 곁들여 김덕배 선배께서 일본 고급 정종을 큰 병으로 2병을 일본서 직접 가져와 분위기를 돋독히 했고, 해남 특주인 홍주의 별미도 좋았으며 좋은 분위기 속에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는 엔터코리아 땅끝 콘도 27평형(방 2개, 응접실 1개)으로 방 하나에 1~2명씩으로 하고 콘도 시설은 땅끝 마을에서는 규모와 설비가 제일 잘되어 있는 콘도였다.

아침 기상은 6시, 조식은 07:00~07:50, 출발은 08:00로 전달하고 취침에 들어갔으나 아침 6시 전에 기상해 해변가를 산책하는 동기생들도 5~6명 있었다. 아침식사는 미역의 본고장이라 미역국으로 통일하고 식사 후 8시 정각 해남 땅끝 마을을 출발하여 두륜산에 도착하여 대흥사를 관람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남해 한려수도를 관광 후 고창으로 출발할 계획으로 출발했다.

대흥사는 두륜산 중턱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사찰로 백제 무령왕 14년에 아도 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를 배출한 우리나라 31 본산의 하나로 조

선 후기 불교문화권의 산실이었다. 대흥사를 탐방하고 두륜산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정상에 올라갔다. 두륜산은 해남의 영봉이며 여덟개의 높고 낮은 면봉으로 이루어진 규모있는 산이다. 북서쪽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 도보로 15분 정도 최고봉까지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고 그 전망대에서 보는 한려수도는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두륜산을 뒤로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로 향했다. 약 2시간 뒤 선운사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풍천장어 쌈밥 전문점으로 KBS 라디오에 보도돼 잘 알려진 국내 최초 풍천장어 대파 숯불구이의 집 “풍천가든”(풍천장어 쌈밥 전문점)으로 들어갔다. 원래 풍천장어란 민물과 바닷물이 합치는 장소를 풍천이라 하고 그 장소에서 서식하는 장어는 품질과 맛이 좋다고 하여 일반이 많이 선호하는데 전북 고창지역(선운사 부근)의 장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장어로 알려져 있다. 선운산에서 생산된 복분자 과일주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특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풍천가든”에서 “국내 최초 장어 대파 숯불구이”로 차린 장어정식에 선운사 복분자로 반주를 하니 맛이 좋아 1.5인분 이상을 전원이 먹었으니 그 맛을 알 수가 있겠다. 식사 후 선운사를 탐방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평

## 회원기고

택 부근 휴게소에서 우동정식으로 간단히 식사 후 서울로 돌아와 해산했다.

이번 모임에서 느낀 소감은 우리 1기 사관

은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동기생들이 항상 이 모습으로 건강을 유지했으면 하는 소망일 뿐이다.



## 차가운 콜라 한 잔의 감동



김종식(공사 13기)

1991년도 8월에 군문을 떠나,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유행도 지나고 철도 지난 옷가지들을 들추는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이 작업을 하게 됨은, 그 때 내게 닦였던 생소한 일상들이 너무 힘들었고, 마음고생이 많았던 일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혹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후배들의 사회적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의 조그만 사회적응 체험담을 적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1991년 8월에 30년 동안 몸담아 온 군문을 떠남과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때 내가 뛰어든 처음 직장과 직책은 자동차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중견그룹의 중역으로서 일본 TOYOTA산 “FORK LIFT 판매 영업본부장”이라는 중책이었는데, 사실 나는 이 직책을 맡을 때까지 FORK LIFT라는 장비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그야말로 문외한에 불과했다.

내가 맡은 영업본부라는 데는 33명의 직원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3개의 사무소가 있었는데 참으로 걱정되는 일들이 닦쳐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출근 첫날은 군에서 같고 닦은 실력으로 “나에게는 여기가 새로운 직장으로 경험이 부족하니 앞으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입사 신고를 근사하게 치렀다.

그리고 이틀 뒤인가 GROUP OWNER이신 회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본부장의 책임과 기업활동은 이익창출에 있다”고 하시면서 알 듯 모를 듯한 말들을 1시간여 가량 하시다가 가신 것이 내가 받은 직무교육의 전부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날부터 회장님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번씩 올려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무얼하고 있느냐”

“지게차는 몇 대나 팔았느냐”

“어떻게 팔려고 하느냐”

“기업은 군대처럼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라고 소위 실적을 챙기는 OWNER로서의 당연한 압력이 계속되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매실적은 고사하고, 직원들의 활동도 확인 못하고, 책상에만 앉아있는 갑갑하기 그지없는 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회장님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는 계속되었고, 급기야 나는 전화벨 소리에 노이로제 증상까지 느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왜 판매실적이 없는가”, 또 “활동상황을 하루에 세번씩 보고하라”는 등 다분히 군대에서 훈시하는 투의 명령을 하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들은 돌아서면서 들릴 듯 말 듯 “여기가 어디 군대인줄 아냐”하고 투덜거리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보니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다.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우선 판매실적은 접어두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매일 직원 한 사람씩 지정하여 활동현장에 함께 뛰어 들었다. 이는 직원들의 활동사항 독려도 있지만, 우선 내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직원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함이 큰 목적이었다.

우리 활동무대는 공장으로 보이는 모든 건물, 창고건물 등으로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끊임없이 돌아다녔다. 보통 신축중인 외지 공장들은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길도 없는 산길을 30분씩이나 걸어서 방문을 했었다. 그 험하고 척박한 현장이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의 수요처이자, 시장바닥인 것을 매일 전투하듯이 체험해 나갔다. 그렇게 찾아 다녀보니 측은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려운 상담도 조금씩 조금씩 추진되어 가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지만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장비는 국산장비에 비해 워낙 고가품(대당 1,000~3,500만원)인데다 외국산(일본)이었기 때문에 한 번 찾아가서 상담이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 번, 세 번, 심지어 열번을 찾아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어떤 곳에서는 영업방법에 대해서 1~2시간 강의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내가 직원들과 함께 뛰며, 의욕을 보인 결과인지도 모르겠지만, 직원들끼리 마음을 조금씩 열고, 상호 토론하는 분위기까지 되었고, 실적도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과 동행하던 방식을 혼자서 활동하기로 결심하고 나도 이제부터는 본부장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겠다”라고 공표하고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활동지역으로는 대전 이북에 있는 모든 공장지대, 석재생산공장 및 산업활동현장 등 지역을 가릴 개제가 아니었다. 낯선 공장을 찾아다니는 것은 육체적인 고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도착하여 정문을 통과하는 것이 첫째 난관이었다. 공장 경비아저씨가 왜 그렇게 무섭고, 높게 보이던지.

“공장에 왜 들어가려 하느냐”

“누구를 찾아왔고, 사전약속은 되었는가?” 등으로 쫓겨나기 일쑤였다.

한번 쫓겨났다고 그냥 발길을 돌린다면 내가 그 힘든 비행기는 어떻게 조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어렵게 정문을 통과하면 2차 관문은 더욱 냉혹했다. 현장사무실에 들어가면 업무에 바쁜 직원들에게 말을 걸기란 여간 강심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더욱 철면피가 되기로 두 번, 세 번 다짐을 하지만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몇 사람을 거

쳐 구매담당자와 접근이 되어도 그 담당자는 또 귀찮은 장사꾼이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인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바쁘니 기다리세요”라고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대면 후에도 그자는 내가 방문목적과 제품설명에 열을 올리면 듣는 등 마는 등 하다가 “국산제품도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구매여 외제를 사겠는가”라고 핀잔만 주고 내치는 것이 다반사였다.

참으로 힘든 활동이 계속되어 가면서 의욕처럼 실적도 오르지 못하고, 내가 맡은 이 일들에 내가 정말 적합치 못하고 “이 사업은 나의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하는 자괴감으로 차츰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럴때면 나는 직원들이 퇴근한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앞마당에 긴 목을 빼고 전시되어 있는 대형지게차를 쳐다보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역시 군인은 사회적응을 못하는구나”

“조종사 출신도 별 것이 아니구나”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 직책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현장을 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힘겹게 산업현장을 누

비고 다니던 어느 초 여름날 오후 경기도 송탄 모산 공단에 있는 크지도 않은 공장사무실 안으로 덥고 힘에 지쳐 들어서는 나에게 한 여직원이 밝은 얼굴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아닌가. 내가 찾아온 용건을 대충 설명하고 “잠깐 기다리라”는 책상 위에 그 여직원이 ‘얼음같이 찬 콜라 한 잔’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잔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천덕꾸러기 장사꾼으로 대접 받아온 감정들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올 것만 같아 한동안 콜라잔에 입을 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공장을 나오면서 “세상에는 삭막한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오아시스같은 마음도 있구나”하고 즐겁고 흐뭇한 마음으로 귀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는구나”하고 느낄 때쯤, 나에게는 새로운 직책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무궁무진한 잠재시장이라는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룹의 총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나는 피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3년간 직원 7명과 중국에 거주하면서 현재 현지인 1,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두 개의 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기업에 남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한가지 통일된 눈초리가 있다. 회장님부터 나를 대할 때마다 “군에서 출세하지, 서툰 장사한다고 고생이 많다”라고 격려인지, 위로인지 알 듯 말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아마도 나는 군인이라는 인식표를 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가 보다. ♠



##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오진교(공사 21기)

청명한 하늘과 상큼한 바람이 한껏 가슴을 부풀게 해야 될 계절에 때 아닌 장마비처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으니 내 또래의 퇴직 군인들은 집에서 무료함에 뒤척이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날씨에는 실외 활동이 불가능하다보니 할 수 있는 일이란 TV 보기, 독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예상, 전역 전부터 취미 활동을 조금씩 접해 보며 제약 없이 인생과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자 했다.

제일 먼저 테니스를 했다. 부대원들과 함께 주 1~2회 땀 흘리고 어울리며 재미있게

쳤다. 그러나 나이도 있고 준비 운동, 실력 부족으로 인한 부상과 순발력 부족으로 실력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금도 주변의 친구들과 종종 어울려 운동하지만 마음과 시간이 맞고 구장과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두 번째는 골프를 시작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매우 혜택 받은 조건으로 과격하지 않고 저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최상의 운동이다. 요즈음도 공군에 고마움을 느끼며 주 1회 동기생들과 라운딩하고 있다. 이 운동 역시 동반자를 모으고 부킹이 돼도 날씨가 도와줘야 즐거움이 배가된다. 부킹, 동반자, 날씨 이 세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세 번째는 등산이다. 전국의 유명한 산은 거의 답사했고 지금도 월 2회는 고정적으로 서울 근교의 산을 걷는다. 요즈음은 집 뒷산 능선을 따라 4~5시간의 산행을 자주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세심한 준비와 날씨에 대비

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네 번째는 조깅이다. 재직시는 가볍게 자유 시간, 일조 행사시, 퇴근 후 달릴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이 풍부했고 복지 시설 이용이 용이해 상쾌함, 성취감을 느끼며 달릴 수 있었다. 퇴직 후에는 뛰는 코스 개발, 시간대 선택이 여의치 않고 혼자 의지로 해야 하고 거르기가 반복되다 보니 그 역시 쉽지 않았다.

그 외에도 사진, 난 키우기, 여행 등을 접했고 지금도 모두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날씨와 무관하게 내 취향을 최대한 살리며 동반자 없이 많은 시간을 건전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한국화를 한번 배워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들었다. 지도 교수님을 만나 뵈고 제일 나이 많은 초보 제자

로 입문, 먹을 가는 방법과 붓 잡는 법을 익힌 후 선 굵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화실에서 불화(佛畵) 작업하는 것을 견학하고 첫눈에 고도의 집중력과 정성 공력(功力)을 요하는 작업 과정을 보게 됐다. 이것이나의 부족한 집중력과 끈기를 키우는 데 적격이라고 느껴 불화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초를 받아 습작을 시작하면서 이 작업에서의 기쁨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됐다.

나는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 사관학교를 통한 군인의 길과 퇴직 후 한국화, 불화를 시작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나의 목표는 열심히 노력해 인생 후반기 결산으로 작품집을 만들어 친지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묵향에 취해 작업을 한다.♠



##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



장창연(공사 23기)

현역시절 인사장교로 근무하면서 “우리 애가 이번에 병으로 입대했는데 집에 가까운 ○○비행단으로 가게 해달라”, 또는 “○○비행단 배속을 받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시간이 많은 곳으로 보직을 받게 해달라” 등의 부탁전화를 많이 받았었다. 그런 전화에 대한 나의 답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 것 같다. 초기에는 “요즘 전산으로 모두 처리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인을 원하는 부대에 배속시키기는 어렵다”고 직설적으로 양해를 구했으나 나도 차차 요령이 생겨서 “확인해서 전화드리겠다”고 답변 내용이 바뀐 것이다. 그 이유는 ‘노력도 안 해보고 거절부터 한다’며 서운하다는 원망

섞인 반응 때문에 나온 일종의 자구책이었다. 답변내용이 달라도 부탁받은 문제의 결과는 달라질 수가 없지만…

비록 인사장교가 아니라도 공군에 근무하는 영관장교쯤 되면 주변 친·인척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한두 번쯤 받지 않았을까 싶다. 문제는 부탁내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탁한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요령껏 처리하느냐 하는 점이다. 답변할 때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병역비리다 뭐다 해서 자칫 일이 커질 수도 있다”고 약간의 엄포를 놓으며 하소연을 해 보지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오로지 “그건 그렇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마음뿐인 것 같다. 나는 이러한 요구를 한 동안 이해를 못했고 오히려 “공군에 입대한 그 자체만으로 편(?)한 군대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집 가까운데 자식을 데려다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부탁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다른 부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될 줄이야. 우리 큰 아이가 공군장교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비록 집 가까이 부대에 배속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좀 쾌적하고 힘이 덜 드는 부대에 배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군에 간 자식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의 몫인데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끈질긴 시달림에 못 이겨 결국 아버지가 나서게 되는 일이 흔한 듯하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의 맹목적인 자식 사랑의 결과라고 나 할까?

이 시점에서 공군입대 장병들의 부대배속 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앞서 언급한 대로 별 효과 없는 부탁으로 남에게 부담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게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다.

공군입대 장병들의 부대배속은 장교,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공군의 각 부대별 병력운영 현황에 따라 공군본부에서 특기별, 부대별 배속인원이 우선 결정된다. 그 결정된 특기별, 부대별 배속인원에 따라 누가 어느 부대로 가느냐의 결정은 교육사령부에서 피교육자의 개인별 희망부대(3개 희망)를 제출 받고,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의 훈련과정에서 받은 성적과 특기교육학교에서 얻은 교

육성적을 종합하여 개인 희망대로 배속부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훈련 및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배속이 결정됨으로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게 제도화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대에 배속 받기를 원한다면 입대 후 받게 되는 제반 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성적을 상위권으로 올려놓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부모가 남에게 공연한 부탁으로 마음의 빚을 질 이 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모가 자식의 군 문제뿐 아니라 여러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도움을 주려는 애뜻한 마음은 귀하다 하겠으나 이제는 그런 마음을 초월하여 매우 합리적인 장병배속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군을 믿고 자식이 어느 군, 어느 부대를 가든 건강한 가운데 자기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 옛날 옛적에



한봉규(공사 29기)

내가 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받던 70년대를 비롯해 그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우리의 역사를 배우며 많이 답답해했던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왜 그리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받았고 당파싸움은 또 왜 그리 많이 했었는지 궁금해 했고 일종의 패배주의에 빠지곤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임관 후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던 우리나라 역사의 실체를 알게 되고 세계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일제의 잔재가 스민 식민사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역사는 작은 역사가 아니요, 또한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바로 되어야 민족의 정체성도 바로 서게 되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매진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갖게 되었다.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외국을 자주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 교민들을 만나면 그 나라의 역사교육에 대해 질문을 하곤 했다. 선진국일수록 그들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자부심도 많이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역사교육을 줄이고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제대로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세 번 축소되고 왜곡되는 시련을 거치게 된다. 그 첫째는 천년왕국

고구려가 형제들의 권력다툼 때문에 무너지면서 당나라에 의해 의도적인 왜곡을 당한 것이요, 두 번째는 고려시대에 서경에 세력을 두고 있던 민족주의 계열인 고구려계와 개경에 세력을 두고 있던 사대주의 계열인 신라계의 다툼에서 고구려계가 패했을 때이다. 흔히 이 다툼을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며 이 다툼 이후 신라계의 김부식은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축소한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된다.

우리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세 번째는 바로 35년 간의 일제 강점기이다. 그들의 뿌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통치했었고 우리 민족은 하등국민이라는 세뇌를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먼저 민간에 있는 역사책을 몰수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지 못하도록 고서수집운동을 벌여 수많은 역사책들을 불사르고 중요한 책들은 일본으로 가져간 다음 우리는 외침이나 당하고 당파싸움이나 하던 민족으로 세뇌를 시켰다.

말이 나온 김에 외침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세계의 어느 나라도 역사가 짧은 신생국들을 빼고 외침을 안받은 민족이 없었다. 서양사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로마도 이

민족에게 유린당하고 멸망했으며 중국만 해도 북방의 기마민족(멀리 보면 우리와 한 뿌리인)에게 침탈당해 중원에 금, 원, 청이라는 이민족 국가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오랜 세월을 지배당했었다. 당파싸움이란 것도 달리 보면 민주주의 발달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반대파를 숙청하고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지금까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인 우리의 고대사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우리는 단군하면 신화라고 하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 어떻게 사람이 천년을 넘게 사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단군이라는 명칭은 그 당시 통치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였다.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1세 단군이 “왕검”이고 마지막 단군은 47세인 “고열가” 단군이었고 47분이 포함 2,098년간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다.

\* 우리가 단군시대를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근세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단군 이전의 역사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단군 이전에 “환웅” 시대가 있었고 환웅 이전에는 “환인” 시대가 있었다. 단군이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환인과 환웅이라는 명칭도 그 당시 통치자의 고유명사였다.

환인시대는 1세 “안파견” 환인부터 7세 “지리위” 환인까지 모두 7분이 통치를 했고 환웅시대는 1세 “거발환” 환웅부터 18세 “거불단” 환웅까지 18분이 통치를 했던 시대이다.

그 당시를 기록한 글들 중에서 재미있는 것을 몇 가지 간추리면 팔괘를 만든 복희씨가 5세 환웅인 “태우의”의 막내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4세 “자오지” 환웅은 중국 측 기록에는 “치우천황”이라고 불리는 분으로 중국의 황제 “헌원”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여 공포의 대상이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썼던 도깨비 문양은 자오지 환웅을 형상화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분이 전투에 임할 때 빨이 달린 투구를 쓰고 싸웠는데 그 당시 갑옷과 투구를 몰랐던 중국인들은 머리에 빨이 달린 것으로 착각을 했고 무서워 한데서 연유된 것이다. 1세 단군 왕검의 둘째 아들이 “부소”라는 분인데 마른 썩을 가지고 돌과 쇠를 부딪쳐서 불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돌을 “부소의 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나중에 “부싯돌”이 되었다. 왕검의 신하 중에 “고시(高矢)”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고마움에 답하기 위해 지금도 들에 나가 밥을 먹을 때는 첫 술을 떠서 “高矢禮”하며 던지는 풍속이 남아 있다. 3세 단군 가락은 백성들이 읽기 쉽도록 38자의 “가림토”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훈민정음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기록들이 과연 사실일까? 약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 한 분이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 분은 이런 사실들이 기록된 역사책에 실려 있는 천문현상에 주목을 했고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기록된 천문현상이 거의 일치하고 관측된 위치도 지금의 만주부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후세 사람이 근거 없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는 우리의 역사인 것이다.

몇 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사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우리 조상인 단군을 중심으로 사상적 통일을 이루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취지로 전국에 300여 개의 단군상을 세웠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릇된 역사에 세워진 일부 종교단체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면서 단군상의 목을 자르는 일을 자행했던 적이 있었다. 뿌리를 알고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사를 후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민족은 흥하지만 교훈을 못 얻는 민족은 망한다는 어느 역사학자의 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

## 편히 쉬시게나!



윤석문(공사 8기)

여보게 운봉(雲峯)이, 편히 쉬시게나!

오늘부터는 여기가 자네 유택일세 그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공기 맑고 산 좋고 물도 좋을 것일세.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 뜨고  
저녁이면 서쪽으로 해 질것이네, 그리고  
밤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빛날 것일세.  
봄이면 꽃피고 새 울며,  
여름이면 녹음 짙고 가을이면 단풍 아름답고  
겨울이면 백설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일세,  
그리고 봄은 또 오는 법……  
내 보니, 남아있는 자네 유족들  
걱정 안해도 되것더이.  
다만 자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손녀딸이나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보살피시게나.

푸른하늘 흰구름, 높은 산봉우리, 쉬고 가는 구름  
모두가 하나같이 해맑게 웃는 자네 미소 같으이!  
이 어찌 우리 유명을 달리했다 하겠나?  
매 6월이면 자넬 찾음세, 오래잖아 우리 또 만나세나.  
본디 가고 옴이란 없는 것이라 하더이.

여보게 운봉이!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편히 쉬시게나.

2005. 9. 29. 윤석문 드림

편집자 주 : 이 평토제문은 2005. 8. 27. 별세한 김상록 회원에게 동기생 회장이 드리는 추도문임.

## 마라톤 행사 견문기



안병걸(공사 20기)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긴장된 마음으로 상암 축구경기장으로 차를 몰았다. 차창을 통해 느껴지는 상쾌한 아침 강바람과 함께 강변북로를 달리며 펼쳐지는 한강의 아름다운 정경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몇주 전 미국 출장을 갔다오니 LG화재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행사에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원이 참가하기로 결정해 10km 마라톤에 내 이름을 등록했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달리기를 해 본 것은 군에 있을 때 일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체력 검정시 2km를 죽어라고 뛰어본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비행단 외곽도로(약 7km)를 뛰어 본 것이 전부였다. 비행단 외곽도로를 뛰고 나서는 1주일간 다리에 알이 배어 고생을 했다. 그 이후부터 단 10분도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던 터라 겁도 나고 자신도 없어 마라톤 행사의 참가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이번 행사는 회사차원의 행사이니만큼 걸어도 좋으니 꼭 참석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당장 준비를 해도 2주밖에 없는데 출장 이후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고 사전 약속들이 잡힌 것이 있어 이래저래 연습을 한번도 못해보고 행사 당일날을 맞게 되었으니 걱정이 태산 같았다.

마라톤 행사 당일, 회사 동료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기 전에 차를 타고 상암 난지도를 한바퀴 돌면서 마라톤 코스가 될만한 도로가 어느 정도로 험난한 코스인지 살펴보았다. 다행히도 생각보다는 난지도 전체 지역이 완만한 지역이라 안심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해 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과 동료들이 일찍이 도착해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다. 회사 동료의 도움을 받아 칩을 신발에 달

고 회사에서 나누어준 상의에 번호표를 달면서 다른 사람들의 복장과 나의 복장을 결눈질로 비교해 가며 달리기 요령을 주위사람들에게 묻는 등 바쁜 마음과 달리기 중간에 낙오에 대한 불안감은 펼쳐 버릴 수가 없었다.

행사장에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는 사이키한 음악과 함께 멋진 댄서들이 등장하여 춤을 추는 것을 시작으로 몇 가지 사전행사를 실시한 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사전 준비운동을 하도록 날씬한 아가씨들이 무대 위에서 군중들을 리드해 나갔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단위, 친구, 직장동료 또는 동호회 등 단체로 참가하여 자기들이 편리한 자세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동참하여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것 같이 흥미롭고 진지한 분위기에 다소 놀랐다. 군에서 자라온 나로서는 많은 군중들을 리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와 정렬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던 터라 다소 생소한 감마저 들기도 했다. 참가자들 중에는 유치원에나 다닐 만한 어린 아이들까지 동반하고 나온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휠체어에 몸이 불편한 분들까지도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나와 이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마라톤 행사는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와 마라

톤을 즐겨하는 건장한 아마추어들이 참가하여 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나의 그릇된 관념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마라톤 행사는 전문적으로 기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건강과 가족 또는 동료들의 단합을 다지는 계기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

드디어 사람들이 출발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 나는 천천히 뛰더라도 조금이라도 기록을 앞당겨 보려는 욕심으로 출발선 맨 앞으로 이동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나는 신발에 달린 칩이 출발점을 지날 때부터 작동되어 끝인할 때까지 시간이 자동적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드디어 팡파르가 울리고 폭죽이 터지면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출발선을 박차고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들에 뒤질세라 속도를 내었지만 100m도 안가서 숨이 차기 시작했다. 점차 속도가 떨어지자 뒤에서 출발한 많은 참가자들이 나의 옆을 지나쳐 앞서가기 시작했고 회사동료들은 나를 지나쳐 갈 때마다 끝까지 잘 뛰라는 격려(?)를 보냈다. 한 20분 쯤 지나자 이제는 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걷는다는 표현이

움을 정도의 속도로 뛰고 있었다.

적어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냥 뛰는 시늉만 하면서 주위 경관도 둘러보고 나를 스쳐 앞서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뛰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아주머니가 나의 옆을 지나쳐 가는데 언뜻 얼굴을 보니 햇볕에 거므스레 그슬린 40대 중반 여인으로 복장을 보니 바지에다 허름한 티셔츠, 그리고 세수수건을 손목에 질끈 동여매고 뛰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시골에서 밭일을 하다가 마라톤 대열에 합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기에 충분하였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아주머니와 보조를 같이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주머니! 참 잘 달리시는 데 예전에 마라톤을 하셨던 거 같아요? 나는 오늘 마라톤이 처음인데 중간에 낙오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마라톤까지 되나요. 예전에는 하프 마라톤도 몇 번이나 뛰었었는데... 아씨의 사업이 잘 안되어서 몇 년간 뛰지 않다가 오늘 마라톤을 한다길래 나도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한 번 시험 삼아 뛰어 보는 거예요.” 하며 상당히 즐거운 표정으로 달리면서 초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었다.

첫째, 절대로 무리를 하지 말고 달리는 것 자체를 즐겨라.

둘째, 힘이 들 때는 보폭을 크게 하지 말고 종종걸음으로 걷듯이 하고

셋째,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도록 하면 오래 달려도 절대로 쥐가 나지 않고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다시 속도를 내어 저만치 달려가는 그 아주머니가 왜 그리도 존경스럽던지 잠시나마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달리기를 하는 동안 내내 그 아주머니가 알려 주신 사항들을 되새기며 한발 한발 내디뎠다. 그래서 그런지 10km 코스를 뛰는 동안 한 번도 걷지 않고 숨도 가쁘지 않았으며 주위사람들과 주변경관을 음미해 가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리기를 즐길 수가 있었다.

결승점이 저만치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10km 달리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성취감으로 뿌듯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또한 10km를 거뜬히 달릴 수 있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기쁜 마음은 말 할 수가 없었다. 길가의 양 옆에서 주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힘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는 함성은 내가 우승자가 되어 축복을 받는 듯한 착각까지 들기도 했다. 정말 그렇게도 걱정하였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골인 지점을 지나 먼저 와 있던 회사 동료들과 즐거운 해

후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리기를 즐겨 하고 있다. 마라톤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해 또 다음에 있을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볍게 달리기를 즐겨한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라톤 행사 참여를 적극 권하고 싶다. 지금도 그때 즐겁게 달리는 요령의 핵심을 일깨워 주신 그 아주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 나의 시골생활



권희분(공사 13기)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도시 생활에 싫증을 느껴서 일까? 나이가 들면서 농촌생활에 대한 향수로 자연과 더불어 살고픈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적당한 매물을 찾던 중 김포지역에 임야 200평이 붙은 대지 200평의 주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곧장 현장에 내려가 보니, 조그마한 야산 아래 20~3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부락인데 위치도 괜찮고 아직 오염이 되지 않은 시골 풍경이 마음에 들어 바로 구입하게 되었다.

원래 최씨 문중의 일가친척이 모여 사는 씨족 마을인 이곳은, 10여 년 전에 이사 왔다

는 한 가구가 그때까지도 이방인처럼 산다고 할 정도여서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다소 경계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의 돈 많은 사람이 별장을 짓기 위해 들어 왔다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왔다는 등, 별의 별 소문이 다 들었다. 그러나 못 들은 척 하고 내일 만 했다.

집은 좀 오래된 양옥으로 비교적 깨끗이 보존되어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했다. 우선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야 했고, 이어서 월동에 대비한 순간온수기와 가스 벽난로, 난방을 위한 전기온돌을 설치하고, 지붕의 기와도 녹색 페인트로 칠해 놓으니 보기에다 산뜻하고 좋았다.

그 다음은 집 앞뒤 텃밭을 경작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가 우거지고 김장철도 가까워 풀을 뽑고 땅을 가는 만만찮은 일이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아내와 같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는지 경계와 거부의 시

선도 많이 사라진 듯 했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미처 몰랐다. 씨 뿌린 곳에는 반드시 새싹이 나오며 정성스럽게 가꾸면 그만큼 싱싱하고 튼튼한 야채가 자란다. 복잡한 사회의 갈등적인 모습을 멀리 떠나 있으니 스트레스가 쌓일리 없고, 계속 육체를 움직여야 하니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이 유지되고, 공기가 맑으니 항상 기분이 상쾌하다. 이른 아침부터 새들이 요란하게 지저귀고, 경운기 소리까지 소란을 떨어대니 늦잠을 잘 수도 없어 저절로 부지런해지며 개구리 우는 소리, 매미소리들로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 전원의 푸근함을 만끽하게 한다. 어디 그 뿐인가? 손수 경작한 채소를 요리하여 식탁을 차리니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특별한 발작물은 이웃 간에 서로 나누어 먹는 훈훈한 인심이 있어 참으로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해진다.

첫 해에는 밭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무와 배추만을 심었는데 다음해에 마늘, 고추, 감자, 시금치, 당근, 옥수수 등 여러 작물을 골고루 심었다. 집 안마당에는 화단도 만들어 채송화, 봉선화, 백일홍 등 1년 초와 접시꽃, 함박꽃, 옥잠화, 파리 등 다년초를 심고, 목련나무, 대추나무, 앵두나무도 심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울사람 같지 않게 농사를 잘 짓는다고 칭찬 해주는 바람에 더욱 시골 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시골로 내려 온지도 벌써 15년,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도 친숙해지고 이곳생활에도 익숙해져 계절의 변화를 즐기며 작은 일, 사소한 일상에도 행복을 느끼는 소박하나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옛그제 심었던 감자, 옥수수, 참외 등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새로 김장 무, 배추를 심을 준비를 한다. 태양이 내려쬐이는 이 더위에 화단 속의 파리들도 붉어지기 시작하고, 옥잠화의 흰 꽃들도 온 집안에 향기를 내뿜기 시작한다. 며칠 전에 뿌린 무, 배추씨는 파릇파릇 떡잎이 돌아나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이제 밭을 갈고 퇴비를 주어 배추 모종을 옮겨 심을 준비를 한다. 날씨는 덥고 햇볕은 따갑고 밭가는 일은 힘들지만 무, 배추 등 새 생명을 돌봐주는 것이, 그래서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나를 즐겁게 한다.

일을 하다 힘이 들어 허리 펴고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에 점점이 흐르는 흰 구름, 저 멀리 잠자리들이 떼를 지어 한가로이 노니는 모습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끄러미 바라보노라면, 어느새 내 마음도 두둥실한 마리의 잠자리가 되어 훨훨 하늘을 난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찬물로 샤워하고 마루에 큰대자로 누우면, 먼데서 들려오는 매미소리가 자장가인양 살며시 졸음이 찾아온다. 오늘도 평안하고 포근한 하루였구나,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이 나요, 내가 자연이 된다.♣





힐터

## 몸 안의 독을 풀어주는 해독 음식

편집실

독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몸에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노폐물도 몸에 독이 되어 남는다. 따라서 독소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잘 중화해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 동원(食藥同原)'이라는 말이 있다. 항시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몸을 맑게 가꾸는 것이 곧 최상의 해독제이다.

### ◎ 바로 이것이 독이다!

흔히 독이라고 하면 니코틴과 알코올을 떠올린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몸에 쌓이는 독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 **스트레스** :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된다. 본래 인체는 스스로 독소를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약해진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마음의 여유 등은 마음의 독을 없애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

- **환경 호르몬** : 독성이 있는 금속이나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페인트나 유리, 통조림 등을 통해서 우리 몸에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다. 일회용 그릇, 각종 편리용품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이런 독성 물질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변비** : 해독의 중요한 과정은 장에서 일어난다. 몸에 쌓인 독소가 다시 배출되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한다. 몸의 다른 기관에서 독을 없앤다고 해도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독소가 다시 몸으로 흡수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장이 깨끗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했다. 장 내의 유해 세균과 가스를 없애야 몸이 깨끗해진다.

- **오염된 식품** : 패스트푸드와 기름에 찌든 음식이 우리 몸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한다.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위와 장에 남아 있는 음식이 독소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제

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몸이 무겁고 나른하며 이유 없이 살이 찌기도 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해독 식품으로 이러한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 **피로한 간** : 담배와 술은 간에 피로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원인.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간의 기능은 인체의 모든 대사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간이 건강해야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영양 섭취 등을 통해 간에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는다.

◎ **해독을 위한 식품 리스트**

특별히 구하기 힘든 음식이 아니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그 가운데 숨어 있는 해독 기능을 알아본다.

- **꿀** : 살균력이 뛰어나서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꿀의 칼륨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킨다.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변비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How to Eat**

1. 피로할 때 마시는 꿀물 한 잔은 숙취를 없애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는다. 이때, 끓는 물보다는 적당히 식어 따끈한

물에 꿀을 탄다.

2. 대추를 잘게 썰어 꿀에 재웠다가 한 스푼씩 저녁에 먹는다. 혹은 이것을 차로 마시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검은깨와 꿀, 우유를 섞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좋다.

- **마늘** : 피를 깨끗이 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기능. 비타민 B와 글리코젠이 간에 축적된 피로를 풀어 주며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또한 항암 식품으로서도 알려져 있다.

**How to Eat**

1. 마늘을 꿀에 재어 하루에 1~2쪽씩 매일 먹으면 강장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2. 생마늘의 경우 하루에 1~2쪽, 익힌 마늘이나 장아찌의 경우는 2~4쪽 정도 꾸준히 먹는다.
3. 조금씩 자주 먹는다. 자주 먹으려면 매운 맛과 냄새를 없애는 것이 필수. 구워 먹으면 냄새 없이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 **된장** : 간 해독에 효과가 큰 식품. 간 기능을 강화하므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좋다. 또한 항암, 항노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How to Eat

1. 된장국을 하루 3그릇 이상 먹으면 폐경 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단,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소금의 양. 싱겁다 싶게, 묽게 끓인 된장국을 자주 먹는다.
2. 된장은 소금 함량이 높고 비타민 A와 C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된장을 부추와 함께 먹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부추에 풍부한 칼륨이 소금을 배출시키고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3.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된장국을 하루에 한끼 이상 챙겨 먹도록 한다.

- 생강 : 몸 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체내

의 독소를 배출하는 식품. 바이러스를 죽이면서도 인공 항생제와 달리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준다. 초기 감기 치료, 위장 질환에 특효다.

### How to Eat

1. 살균 작용이 뛰어나므로 생선회와 곁들여 먹는다. 또한 육류를 조리할 때 곁들이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2. 찹쌀에 넣어 죽을 쑤어 먹는다.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진 대사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강 3쪽과 대추 2알

내용출처 : 네이버 블로그 - 다이어트 & 쇼핑의 모든 것.





##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

편집실

다이어트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유산소운동이란 산소를 들이 마시면서 하는 격렬하지 않은 운동을 말합니다.

걷기, 조깅, 등산, 사이클 등등을 말하며, 無산소운동이란 산소가 거의 필요없는 100m 달리기나 중량운동 등 격렬한 운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은 유산소운동을 하게 되는데 유산소운동을 하면서 알아되어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유산소운동의 특징을 인간이라는 자동차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통의 구조를 보면 첫째 칸은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둘째 칸은 단백질, 그리고 셋째 칸에는 비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연료는 순서대로 사용이 됩니다. 절대로 거꾸로 사용되거나 중간부터 먼저 사용하질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10분간은 첫

째 칸에 있는 탄수화물을, 다음 10분간은 둘째 칸에 있는 단백질을, 그 후부터는 셋째 칸에 있는 지방을 쓰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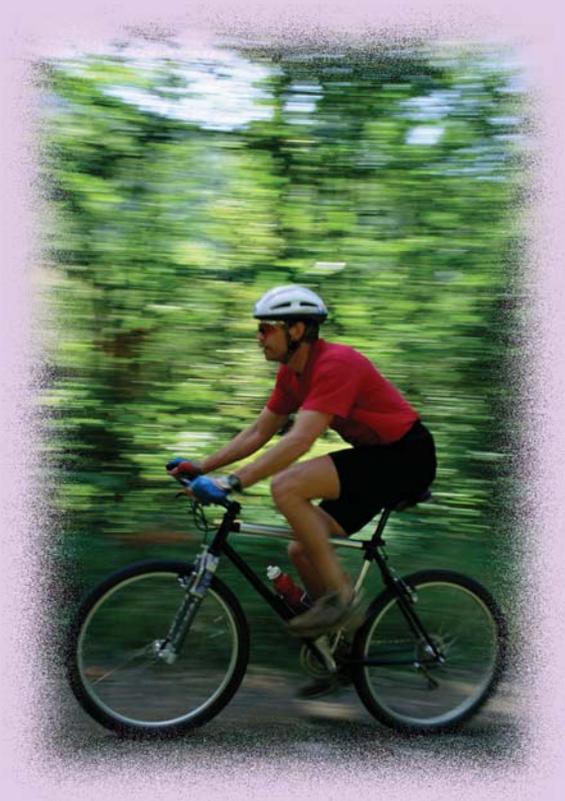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보면 첫째 칸, 둘째 칸에 있는 연료를 다 쓰고는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셋째 칸에 있는 지방을 갖다 쓸려고 하는 시점에 그만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5분 하다가 5분 쉬고... 10분간 빨리 걷다가 5분간은 천천히 걷고... 물론 운동한 시간을 전부 합치면 30분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식의 운동은 첫째 칸에 있는 탄수화물을 쓰다가 쉬고서는, 다시 또 첫째 칸에 있는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운동을 할 때 다음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중간에 쉬게 되면 다음 칸으로 연료 이동이 되질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런닝머신 한 10분 하다가 내려오고 저쪽에 가서 다른 운동기구 좀 하다가 내려오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런닝머신을 30분하면 10분간 지방을 연소한 것이고 한 시간 운동하면 40분간 지방을 소비한 것입니다. 오래달리거나 파워워킹을 하루 한 시간씩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살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매일 40분간씩 지방을 당겨다 쓰게 되니까 지방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스장에서 준 가방하나 메고 매일 헬스장 다니는 사람 중에는 자기는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유산소운동의 특징을 아셨으면, 이제부터는 운동 시작했다 하면 한 운동이라도 쉬지 말고 최하 40분정도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내용출처 : 네이버 블로그 - 팻킬러





# 산행의 육하원칙

편집실

## 하나. 언제 산으로 가나?

봄이 좋다. 가을은 더 좋다. 여름도 괜찮다.  
겨울은 시리도록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영락없이 더 좋다.  
괴로울때 가라. 기쁠 때나 외로울 때도 가라.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눈이  
부시게 푸른 날, 달 밝은 날,  
미쳤다고 생각되는 날까지 가라.

## 둘. 어느 산을 갈 것인가?

가까운 산 몇 번 간 후에 먼 산으로 달려가라.  
낮은 산 오르고 높은 산 올라라.  
유명하고 아름다운 산은 자꾸만 가라.

## 셋. 누구하고 갈 것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다면 적어서 좋다.  
서넛이면 여러 가지로 좋고, 둘이면 손잡기  
좋고,  
혼자면 마음대로라 좋다.  
홀로 가면 바람과 구름, 나무와 새, 꽃과 나  
비를 몽땅 가슴에 담을 수 있어 희안하게  
좋다.

## 넷. 산에 가서 무엇을 하나?

기진할 때까지 방황하다 쓰러져라.  
두려움조차 내 짓으로 껴안아라.  
새소리도 흥내내보고 나뭇잎에 편지라도 적  
어보라.  
향기에 취해서 야생화를 뺨에 비벼보라.  
도토리 한 알 주워 친구에게 선물해보라.  
산정에서는 고함보다 침묵이, 침묵보다 명상  
이 엄청 더 좋다.

## 다섯. 어떻게 산에 가면 좋은가?

말가벗고 가라.  
허위와 영악함,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가져주  
는 옷과 넥타이, 모자, 양말까지 벗고  
가라.  
그렇게 하면 솔바람에 마음을 정갈히 빗질할  
수 있고 맑은 계곡물에 더러움과 영악함을  
헹구기 쉽다.

## 여섯. 왜 산에 가는가?

산이 있기에 간다.  
우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났다.

대답하기 어려우면 존재론으로,  
더 곤란하면 운명론으로 돌려라.

더더욱 곤경에 처하면 되물어라.  
“당신은 왜 산에 안 가는가?” 라고





# 그놈의 골프 끊어야지

편집실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기도 안 차는 것아...

나 원, 운동 같지도 않은 것이 말예요, 하구나면 뭐 한 번을 즐겁게 해주길 하나, 친구간에 우정을 돈독히 해주길 하나, 열은 열대로 받구,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가구..

공 한 개 값이면 자장면이 곱빼기로 한 그릇. 물에 빠뜨려도 의연한 체, 허허 웃어야지, 인상쓰면 인간성 의심받죠. 자장면 한 그릇 물에 쏟아놓고 웃어 보세요, 아마 미친놈이라고 할 텐데..

여름이라고 햇볕을 피할 수 있나, 겨울이라고 누가 따스한 입김을 한 번 불어 주나, 제대한 지가 언제인데 특하면 산등성으로 기어 올라가 각 개 전투해야 하고, 호수랍시고 물만 보면 피해 다녀야 하고, 공이 갈 만한 자리에는 무슨 심술로 모래 웅

덩이 파놓고, 흙은 꼭 처녀 엉덩이 꼭대기 같은데다 콧구멍 만하게 뚫어놓고...

잘 맞으면 '일 안하고 공만 쳤나?' 욕먹고, 안 맞으면 '저 새끼, 운동신경 더럽게 없어' 욕먹고, 퍼팅 길면 쓸데없이 힘 쓴다 욕먹고, 짧으면 쫄았다고 욕먹고, 농담하면서 공치면 까분다고 욕먹고, 진지하게 공치면 열 받았냐고 욕먹고..

잘 쳐도 욕먹고 못 쳐도 욕먹고, 자주 쳐도 욕먹고, 자주 안쳐도 욕먹고, 새벽에 쳐도 욕먹고, 낮에 쳐도 욕먹고, 비올 때 쳐도 욕먹고, 눈올 때 쳐도 욕먹고,

아, 이제부터 '욕먹고' 를 빼고 써야지. 조용히 쳐도, 시끄럽게 쳐도, 천천히 쳐도, 빨리 쳐도, 멀리 쳐도, 짧게 쳐도, 잘 맞아도, 안 맞아도, 돈 내고 쳐도, 접대 받고 쳐도, 우짜든지 욕을 먹게 되어 있는..

이런 골프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욕먹기도 지쳤고,  
돈 쓰기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너무 너무 화딱지가 나서 말입니다,  
이제 골프를 화~악! 끊어 버려야지.

다시는 골프채를 만지나 봐라!  
절대로 다시는 안 칠거야!  
그러구 나니 이렇게 속 시원한 걸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다음주에는 어디에 부킹할까?





## 결혼 80년 엇 커플 비결은 “여보 미안해”

편집실

결혼 80주년을 맞은 노부부의 금실 비결은 “미안해”와 “그래, 여보”라는 말이었다.

영국 히어포드에 사는 퍼시 애로스미스(105)와 플로렌스(100) 부부는 1925년 6월 1일 동네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법률사무소 직원이었던 남편 퍼시가 스물다섯 살, 주일학교 교사였던 플로렌스는 스물이었다.

이들은 결혼 2년 후 입주한 히어포드 브라 인튼가(街)의 집에서 지금껏 살아왔다. 이들의 80년 해로(耄老)는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 결혼기록’을 경신했다고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기존 기네스북 기록은 일본 노부부의 결혼 78주년이었다.

퍼시 할아버지와 플로렌스 할머니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어떻게 80년이나 부부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플로렌스 할머니는 “미안해(Sorry)”라고 말하는 걸 절대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퍼시는 “그래, 여보(Yes, dear)”라는 두 단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결코 다툰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으며, 열심히 일하며 산 것이 축복 받은 결혼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내가 TV 연속극 보는 걸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빼면, 요즘엔 별로 다투지 않지요. 우린 다툼거리가 생기면 꼭 같이 풀어 나가죠. 싸워도 항상 다시 친구가 돼, 껴안고 토닥거린 뒤 키스를 하고 잠자리에 들지요.” 플로렌스 할머니의 말이다. 점심 때 셰리(도수 높은 포도주) 한 잔과 밤에 위스키 한 모금을 마신다는 그녀는 “80년간의 결혼이 쉽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남편이 있었기에 매 순간이 의미 있었다”라며 “그는 내 인생의 사랑(love of my life)”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네스북의 최장기 결혼기록뿐 아니라, 최고 부부 합산 나이 기록도 깨뜨렸다. 두 사람의 합산 나이는 205세하고도 267일이다. 자녀 셋과 손자·손녀 여섯, 증손자 아홉을 두고 있다.

내용출처 : 런던 로이터/연합뉴스



쉼터

## 아인슈타인의 강의

편집실

순간적인 유포어로 ‘위기일발’의 순간을 넘긴 유명한 이야기 중에 아인슈타인 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의 유명한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무렵의 이야기 중에, 아주 임기응변과 기지가 넘치는 그의 운전기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 당시 그는 워낙 유명세를 치르느라 미국의 여기저기 각 대학으로부터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승용차의 운전기사 역시도 강연장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즐기치게 강연을 2~30회나 듣다보니 이제는 그 내용을 완전히 암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며, 더군다나 그 운전기사는 장난기가 통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제안하길, “이젠 박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몇 십번이나 줄곧 반복하였으니 무척 피곤하실 터이므로, 다음의 강연장에서는 제가 박사님의 양복을 입고 남들에게 탄로가 날 때까지 강연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

는 제안을 하자, 아인슈타인 역시도 장난기가 일어나 “좋아요, 나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말이야.” 하여, 다음 강연장에서는 운전기사가 직접 아인슈타인 박사의 옷을 입고 아인슈타인의 행세를 하며 거의 완벽하게 상대성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서 연단을 내려오려고 했을 때 뜻하지 않게도 꽤 유명했던 교수 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슬기롭게도 단상에 있던 가짜 박사는 용기와 배짱으로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로써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저런, 그런 질문이라면 간단합니다. 나의 운전기사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양반, 이쪽으로 올라와서 설명해 주도록 해요.”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진짜 아인슈타인 박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난관을 돌파하여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끝낼 수가 있었을 정도로 그날의 유포어 작전은 대성공이었다고 하는 얘기이다.

내용출처 : 네이버 블로그

# 총동창회 알림

- ◇ 총동창회 이사회
- ◇ 평생회비 적립 현황
- ◇ 제13차년도 찬조금 현황
- ◇ 전역자 현황
- ◇ 결혼/부음
- ◇ 주소변경
- ◇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 ◇ “뿌리를 찾아서” 뒷이야기
- ◇ 편집 후기
- ◇ 기고안내
- ◇ 총동창회 사무실 주소



## 총동창회 이사회



회칙 제5장 제17조에 의거 지난 2005년 7월 28일(목) 18:00 공군회관에서 제13차년도 총동창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제1기에서 제4기까지의 원로 이사와 제5기에서 제33기까지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보고에 이어 제13차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자금 조성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 ◇ 회무보고 내용

- 공사총동창회 회원 현황
- 평생회비 적립기금 현황

### ◇ 13차년도 주요 사업계획 - 연속사업

- 졸업생도 표창
- 자랑스러운 공사인 선정/표창
- 홈컴데이(개교기념일 행사)
- 졸업/임관 50주년 행사지원
- 친목활동 : 바둑대회, 골프모임
- 성무지 발행
- 부대방문(공본/작사/공사/일선부대)
- 경 · 조사 축하 및 조문

### ◇ 13차년도 주요 사업계획 - 신규사업

- 우수생도 해외견학 지원 : 생도들의 국제 감각을 고양하고, 공사인이란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하여 생도들의 외국사관학교 견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에 500만원을 지원

### ◇ 소요 예산 : 총 67,300,000원

- 사업비 : 2,200만원
- 회의 및 사무실 운영비 : 2,000만원
- 인건비 및 예비비 등 : 2,530만원



## 총동창회 이사회

### ◇ 운영기금 조성계획

(단위 : 만원)

	내 용	수 입	비 고
1	기별 분담금	1,580	5~12기 : 40만원 13~33기 : 60만원
2	찬조금 - 특별 찬조 - 운영기수 찬조	350 4,000	총장, 재향군인회장 13기 사관
3	광고비	600	
4	이월 운영금	200	12차년도 운영기수
	계	6,730	

### ◇ 기타 - 모교관련 행사 조정·통합

주5일 근무의 적용에 따라 생도 동원 행사시 훈련과 학습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울러 기생별 행사가 알차고 뜻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20/30/50주년 행사, 홈컴인데이 행사, 개교기념행사 등을 해당 기생, 사관학교 및 총동창회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였다.





## 평생회비 적립 현황

### ◎ 평생회비 납부 안내

평생 회비 납부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 평생회비란?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100,000원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회원당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다. 13차년도 운영기수가 인수한 평생회비 적립금액은 354,298,201원이다.
-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한다.

### ◎ 평생회비 납부현황

#### ◇ 평생회비 완납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19

※ 19기생은 2005. 11. 11일부로, 18기생은 12. 13일부로 완납하였음.



## 평생회비 적립 현황

◇ 2005. 7. 1. 이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05.07.01.~2005.12.30.

기 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16	56	41	15						
17	60	49	11	정태섭, 차상호					
18	69	69	0	김태수, 김호중, 박병만, 박재근, 박찬태, 양인선, 오광숙, 윤재훈, 이범산, 이병철, 이종윤, 정애남					
19	70	70	0	강교식, 강성영, 고순형, 김구섭, 김두환, 김성용, 김용득, 김우태, 김의중, 박창용, 박창진, 변상균, 송병호, 신명남, 신영덕, 안동원, 엄영성, 유근수, 유태형, 이계백, 이상배, 이성균, 이종현, 정선구, 정일권, 주진규					
20	94	47	47	안병걸, 홍갑선					
21	97	37	60	김형진, 박용복					
22	103	32	71	김장호, 남궁혁					
23	109	35	74	김창환					
24	130	53	77	안임규					
25	124	33	91	이정표					
26	123	20	103						
27	125	16	109	이제훈					
28	122	16	106	정재부					
29	141	34	107						
30	152	21	131	채덕상					
31	166	9	157						
32	168	5	163						
33	173	14	159						
34	167	9	158						
35	252	6	246	온용섭					
36	256	7	249						
37	252	2	250		46	227	1	226	장순천
38	233	3	230		47	201	0	201	
39	221	1	220		48	193	90	103	
40	238	0	238		49	199	0	199	
41	242	1	241		50	193	0	193	
42	276	0	276		51	202	0	202	
43	270	0	270		52	203	0	203	
44	210	4	206		53	202	0	202	
45	211	0	211						
합	현재인원 : 7,354		납부인원 : 1,601			미납인원 : 5,753			



## 평생회비 적립 현황

◇ 2005. 6. 30일까지 납부자 현황

기 수	납 부 자 명 단
16	강철수, 권명남, 김문기, 김성구, 김신희, 김의림, 김정갑, 김정욱, 김종환, 김현석, 김회동, 박성국, 박경웅, 박영기, 박영훈, 배정영, 배충정, 백동기, 서효창, 양길수, 오창모, 이상렬, 이선기, 이성우, 이수웅, 이재기, 임정빈, 장정동, 장진수, 전광남, 정해창, 주창성, 지양일, 최동철, 최명상, 최양웅, 신무광, 이은양, 정준식, 최동빈, 조창조, 강안석
17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권혁중, 김문수, 김상재, 김석우, 김용수, 김운태, 김응수, 김익창, 김재수, 김종현, 김준수, 박용택, 배종수, 서정운, 송대성, 안광수, 어수연, 원철희, 유성열, 유정웅, 유현준, 윤병인, 이규대, 이규희, 이문호, 이상을, 이웅대, 이한호, 이철희, 전영배, 장상용, 장호근, 조규식, 차옥환, 한형택, 황창변, 박운교, 손종호, 차선규, 최복현, 최석권, 임흥규, 상석곤, 신영실
18	곽조휘, 강재필, 고정훈, 구세환, 구정희, 곽은용, 김두연, 김성진, 김종식, 김재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곤, 김현규, 나금복, 류효열, 박경집, 석현수, 선치수, 손인익, 송희전, 신명호, 신평근, 엄이웅, 오인성, 오병한, 오환근, 윤관중, 윤봉수, 이기택,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욱, 이진학,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장용주, 전영훈, 정원태, 최석상, 최태호, 천기광, 허 한, 김정수, 박문현, 조남홍, 김재광, 진운섭, 정운태, 정용진, 김중하, 조인행, 공명석, 김현수
19	김덕실, 김명립, 김영철, 김인열, 김정진, 김현진, 박 열, 박희채, 백철인,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양홍진, 유병구, 유병권, 유승렬, 윤정채, 이균신, 이강욱, 이계오, 이규찬, 이달호, 이상을, 이송호, 이영순, 이인형, 이종관, 임종태, 장희천, 정성진, 정하섭, 조명래, 조용희, 지광식, 편세영, 하석태, 홍강표, 김복만, 박상인, 전재구, 김만철, 민주동, 박규복, 윤영원
20	강만수, 김동래, 김삼교, 김성두, 김성일,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문태일, 박 영, 백재현, 손준영, 이정학, 이영원, 이영희, 이재원, 이종록, 이치훈, 장성문, 정제택, 정철호, 조태연, 차종권, 최삼용, 한광성, 한길성, 한준수, 허원욱, 홍상열, 이병기, 이석규, 임근배, 김점태, 이사룡, 김광영, 안상복, 박동형, 김규식, 김덕선, 이정호, 김원춘, 김영한, 강유춘, 전호환, 이철주, 유선종, 서일수
21	강남식, 권 근, 금기연, 금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영학, 김태욱, 명칠원, 민병홍, 박경석, 박희영, 배민섭, 배창식, 박천수, 성광준, 성봉환, 송동근, 윤희철, 이광영, 이광희, 이수남, 장성태, 정용운, 조오현, 한홍섭, 홍종백, 황시홍, 박건웅, 유관욱, 황성창, 김동기, 마순복, 김광진, 이 찬, 김태욱
22	강수준, 김은기, 남백우,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손중열, 송인선,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경환,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장현섭, 정갑순, 홍재근, 최병운, 최승열, 한종호, 류양수, 이광희, 한웅섭, 김재승, 임인빈, 오봉진, 김인식, 장영현, 김철구, 최호준



## 평생회비 적립 현황

기 수	납 부 자 명 단
23	구본담, 강희창,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형선, 박종철, 이계훈, 이영덕, 이은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최진수, 하창호, 조원건, 함경만, 김상문, 박종화, 윤남수, 이상진, 정희균, 정희진, 한규섭, 허일영, 이수현, 이동호, 최상익, 장창연, 권오봉, 김경순
24	강철혁, 고재봉, 권오석, 공윤석, 김광목, 김명익, 김신원, 김익경, 김재철, 김태열, 나용근, 나재남, 노성래, 류동수, 민경식, 박준홍, 박진열, 백영남, 백운호, 신진섭, 송기백, 안임규, 안창수, 안빈용, 염경식, 이기용, 이월중, 이영재, 이영중, 이용상, 이재강, 이철순, 전남채, 정남주, 정성화, 정점조, 정필훈, 주신호, 주종수, 천두봉, 최재호, 최재희, 최종용, 최홍진, 허봉재, 현일수, 홍순화, 송광호, 이봉운, 백영남, 김상철, 김동진, 김득환, 설증일, 하원훈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권, 김국휘, 김진태, 김종흙, 김정렬, 류홍규, 박우성, 박춘한, 손명환, 심재명,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이귀형, 이석찬, 이성재, 임우규, 장래환, 장희태, 최미락, 최승규, 홍건표, 권용국, 성신모, 김종원, 이승구, 김찬환, 김호식, 윤학수, 이성우, 하왕규
26	김태영, 박인규, 배충영, 변종돈, 송길수, 심상철, 유지훈, 윤덕중, 임상현, 최병학, 최지수, 허종순, 이봉준, 전성관, 이상길B, 기예호, 오중기, 박중석, 성삼식, 박성보, 강희규, 김세창
27	고덕규, 고용하, 권오성,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창권, 손태용, 최동환, 한병국, 홍성은, 신해철, 이영만, 박경규, 이무섭, 박한진
28	김남수, 김주언, 신영덕, 윤 우, 음종민, 최상일, 하태직, 김명호, 조민식, 이태용, 황신섭, 김도호, 김형수, 서근영, 박경진, 한창환
29	김경호, 김석중, 김성전, 김영권, 김영분,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충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한봉규,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김윤희, 김희영, 조병호, 전동기, 한봉완
30	강성호, 김원규, 김용환, 김진완, 장덕진, 정규호, 차주섭, 채종목, 이지영, 이경달, 심인태, 강구영, 고영문, 김무겸, 김종선, 양승주, 이연수, 한상덕, 서희석, 손한섭
31	강경한, 김철승, 신재현, 조환기, 김홍준, 임봉수, 장영익, 박항운, 김동철, 현용희
32	김현곤, 심부수, 최원기, 김영수
33	박수철, 유준중,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재홍, 장경식2, 정영철, 정희주, 심동섭, 이동교, 한상균, 장병노, 박진용
34	감수봉, 송광혁,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정상길, 정찬영, 김학준, 조현상



## 평생회비 적립 현황

기수	납부자명단
35	김종은, 민태기, 서완석, 강규식, 류영관
36	김성균, 김응문, 박종국, 박홍식, 나문관, 이준모, 임이철
37	이재섭, 최기명
38	이정호, 윤상보, 신보현
39	최정모
40	
41	김민호
42	
43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46	
47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근,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년수, 김택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몬,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힘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50	
51	
52	
53	



# 제13차년도 찬조금 현황

## ◎ 기별 분담금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430-210699  
예금주 : 강신해(해당기수 사무총장)

◇ 기별 분담금이란?

- 기별 분담금이란 총동창회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기수에게 총동창회 운영경비를 운영기수 인접 기생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는 40만원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다.
- 납부시기는 가능하면 운영기수가 총동창회를 담당하는 시기인 매년 7월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기생별 운영책임기간은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 13차년도 기별 분담금 납부현황(임원기수 : 5기~33기)

(2005.12.31. 현재)

기 수	금 액	납 부 현 황
5기~12기	40만원	완납
13기~33기	60만원	완납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5, 30, 31 미납 : 23, 24, 26, 27, 28, 29, 32, 33

## ◎ 특별찬조금 : 400만원

직 책	금 액	비 고
전 공군참모총장 : 이한호	300만원	
재향군인회장 : 이상훈	50만원	
전 방공포 사령관 : 박창규	50만원	

## ◎ 운영기수 찬조금 : 4,000만원

※ 13기 사관은 전원이 찬조하였음.



## 전역자 현황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5. 7. 31.	대령	남태욱	3009	22	'05. 11. 30.	소령	김수복	1707	31	
	중령	강준상	7008	25		중령	박장순	4008	31	
'05. 8. 31.	중령	이건성	1408C	34	'05. 12. 31.	대령	최병운	7509사	22	
	소령	이형호	1407F	38		대령	노장갑	1409F	22	
	소령	민성훈	1407F	38		대령	배효직	1409F	22	
	소령	정한수	1407C	38		대령	장영현	1709	22	
	소령	최성렬	1407C	38		대령	권영락	7509사	22	
	소령	김영곤	1407F	38		대령	백계근	3009	22	
	소령	송기혁	1407F	39		대령	전병태	1409F	22	
	소령	임정하	1407C	40		대령	한영열	4009	22	
	소령	최부석	1407F	40		대령	김종세	1409F	22	
	소령	엄기형	1407F	40		대령	강수준	7509사	22	
	소령	이인희	1407C	40		대령	이상성	7009	22	
	소령	이현우	1407F	40		대령	연철봉	1409C	22	
	'05. 9. 30.	중령	문성균	4608		25	대령	김진호	4609	22
		중령	이장춘	4608		25	대령	이승희	7009	22
대령		김주언	7509사	28	대령	김준현	4009	22		
소령		모경원	1407F전	38	대령	김기두	1409F	22		
소령		최홍장	1407F	38	대령	주형철	4009	22		
소령		윤덕환	1407F	39	중령	이희용	1409F	22		
소령		정권일	1407F	39	중령	윤석철	7508사	25		
소령		예병국	1407F	39	중령	심영섭	4608	25		
소령		이호수	1407F	40	대령	유을규	1408H	25		
소령		이승환	1407F	40	대령	윤성현	4008	25		
소령		김상덕	1407F	40	대령	전영구	1408H	26		
중위		박준영	1706	52	대령	김광수	2509	27		
'05. 10. 31.		중령	박주이	1708	27	대령	박상욱	4008	29	
		소령	박상준	7007	36	소령	허용무	4007	33	
'05. 11. 30.	중령	최형기	3008	25	대위	임장혁	1807	42		



## 결혼/부음

###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2005. 7.~12.)

월 일	기 수	성 명	관 계	월 일	기 수	성 명	관 계
8월 27일	13기	최영덕	장녀	10월 29일	20기	김정기	장남
9월 2일	19기	윤정채	장녀	11월 4일	18기	송희전	차남
9월 3일	20기	이정학	장녀	11월 13일	9기	임병선	차남
9월 23일	20기	전호환	장녀	11월 20일	21기	강수근	장남
9월 25일	21기	장석태	장녀	11월 26일	13기	민양식	장남
10월 8일	12기	민항식	장녀	12월 10일	12기	정민남	장남
10월 15일	21기	한홍섭	장녀	12월 18일	14기	한용길	장남

※ 공사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려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사무실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7월 13일	40기	김태균	순직
	40기	김동철	순직
	40기	이해남	순직
	46기	김종수	순직
8월 14일	11기	김판수	별세
8월 27일	8기	김상록	별세
8월 29일	4기	이내석	별세
9월 27일	9기	이재를	장모상
10월 26일	22기	이정석	부친상
11월 4일	15기	임용원	장인상
11월 7일	4기	박찬득	별세
11월 8일	4기	유제호	별세
11월 14일	9기	임병선	장모상
11월 24일	4기	장무익	부인상
12월 7일	15기	최광섭	부친상
12월 8일	15기	박오상	모친상

※ 총동창회장 명의의 조기를 보내 전 회원의 조의를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본인 이하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 한해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까지도 해당됩니다.
- 국내 어디에라도 당일에 전달 가능하니 총동창회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에는 사무총장이나 여직원에게 연락 요망).



## 주 · 소 · 변 · 경

(2005년 7월~12월 현재)

기 수	성 명	주 소	우 편 번호	전 화 번호
2	이주용	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포스홈타운(아) 203-1304	449-566	031-897-9679
2	전상환	경기 광주시 쌍령동 337 동성1차(아) 101-602	464-702	031-798-1153
3	박귀용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4 청구(아) 103-901	135-871	546-3897
3	전복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산들마을 대림(아) 206-2103	410-776	031-922-3817
5	김성일	경기 시흥시 대야동 332 극동(아) 105-203	429-010	031-317-6805
5	송기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2-3	560-836	064-222-3626
5	이원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현대홈타운 112-303	157-791	2060-0748
5	임학용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아남(아) 102-1405	110-767	765-0039
6	김태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3-5 우정주택 401호	440-300	031-256-3759
8	민계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백송마을 두산(아) 904-703	411-721	
8	배영철	부산 연제구 거제1동 거제2차 현대홈타운 204-701	611-766	051-503-8265
11	신보언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05 우성(아) 305-1310	156-773	535-0832
13	박관수	서울 양천구 목1동 932 현대1차(아) 102-601	158-051	2645-3437
13	이강평	경기 용인시 신봉동 911 신봉마을 LG자이2차(아) 217-804	449-150	031-712-3390
13	이승대	서울 노원구 상계10동 주공(아) 901-1001	139-759	933-2285
13	이태규	경기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1088 덕산(아) 308-601	411-762	031-921-1773
13	최길용	경기 용인시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 11블록 성현마을 광명샤인빌 402-1503	449-160	031-898-2329
13	최재구	경기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652 수원동마을 쌍용스윗닷홈 206-1301	449-942	031-275-0374
15	김석호	경기 파주시 조리읍 배원리 한라비발디(아) 114-502	413-748	031-957-9460
15	오상현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2 근형심포니 105-602	464-883	031-761-0657
16	정해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레미안(아) 110-1804	137-775	599-8881
17	고영섭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신삼호(아) 바-601	137-759	596-5363
17	황창번	경기 고양시 화정동 986-6 동도센터리움 1903	412-270	031-978-0816
18	박경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51 삼청	360-809	043-294-4468
18	천기광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우성3차(아) 1-601	135-807	3461-8843
19	강성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 6-801	137-947	595-9923
19	김구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미주(아) 7-1107	130-781	957-5108



## 주 · 소 · 변 · 경

기 수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9	김성용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10 대우이안오피스텔 909호	150-836	6402-9774
19	김용득	대전 유성구 원내동 357 한아름(아) 109-301	305-723	042-545-2929
19	박상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진로(아) 104-404	150-750	2672-6755
19	박창용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아) 307-2104	150-775	832-9486
19	손영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동아(아) 102-1405	321-915	042-841-2360
19	유근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4 벽산메가트리움 103-2202	150-990	2675-1053
19	유병권	경기 용인시 양지면 추계2리 248-1 써니빌빌라 103	449-824	017-402-2421
19	유승열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7-1 우림(아) 104-904	321-900	042-841-4950
19	유태형	서울 동작구 상도2동 대림(아) 11-305	156-716	817-0862
19	윤정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3 별빛마을 현대(아) 714-1203	412-739	017-676-2591
19	이계백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2차(아) 108-907	137-949	596-0994
19	이균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9 건영(아) 104-306	320-811	043-900-0479
19	이성균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7차(아) 301-907	137-030	591-4938
19	이영순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540	355-852	041-936-5015
19	장희천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500 삼성레미안(아) 103-502	133-782	2291-0710
19	정일권	서울 송파구 거여2동 291 동아(아) 202-1501	138-112	449-1482
20	김덕선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72 수락 현대(아) 101-984	139-750	019-293-1805
20	안병걸	서울 강동구 길동 산1번지 삼익Park 508-702	134-765	6412-1161
20	이정학	서울 구로구 개봉1동 60-82 거성 푸르피(아) 203-604	151-751	2687-2967
21	김상욱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황제(아) 107-903	712-732	016-837-5482
21	정성구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숲속마을 대우(아) 104-404	415-811	031-984-8816
21	신보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 17-41	150-894	783-1806
22	김장호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80 EL샤틀렛(아) 402호	150-842	831-9792
22	조영기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068 한화(아) 103-1006	465-815	010-3949-8246
30	김정렬	경기 평택시 이충동 393-3	459-039	031-665-5646
30	채종목	서울 강서구 화곡 푸르지오(아) 125-104	157-773	2603-1892
34	심재관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강촌마을 7단지 710-705	411-716	031-905-8712

※ 우편물 반송이 너무 많습니다. 주소 변경시 총동창회 사무실로 꼭 연락하여 주십시오!



##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1기	회장	최규순	533-2485 011-253-3154	14기	회장	안택순	031-272-5565 011-345-4309
	총무				총무	석영우	592-3509 011-888-3509
2기	회장	김진산	783-9020	15기	회장	명정수	031-385-3960 011-9089-2098
	총무	이유명	782-1707 011-9077-2153		총무	김주식	032-273-2224 011-9827-2224
3기	회장	정규혁	457-0741 011-232-1526	16기	회장	이재기	2256-5868 011-441-8108
	총무	김필원	713-2139		총무	박영훈	031-976-1950 018-204-1950
4기	회장	박병순	2298-0017 011-396-8182	17기	회장	윤병인	031-2669-1500 011-754-5455
	총무	조시중	031-233-6750 010-2224-6750		총무	안광수	031-3477-7337 011-253-6728
5기	회장	손경희	031-902-7965 016-313-7965	18기	회장	이선희	017-701-8010 031-704-8019
	총무	김재성	031-395-8780		총무	조인행	3217-9417
6기	회장	이의재	031-916-3852 017-741-3852	19기	회장	김명립	920-5700
	총무	김원근	584-4827 016-268-4827		총무	윤정채	043-293-5864 017-676-2591
7기	회장	김정동	031-702-3109	20기	회장	김성일	920-6000
	총무	신덕식	031-903-3629 010-2209-3629		총무	서일수	921-5201
8기	회장	윤석문	592-0212 016-747-0220	21기	회장	박희영	920-3280 017-673-6552
	총무	백상희	521-6398 011-725-5171		총무	강한중	031-272-7282 010-6808-5524
9기	회장	임병선	502-1149 017-334-1078	22기	회장	김인식	017-675-7706
	총무	조희열	2602-7257 017-337-7257		총무		
10기	회장	서진규	032-326-1243 016-695-2135	23기	회장	이계훈	790-2618 017-284-5736
	총무	송창수	031-264-4575 011-229-6901		총무	류연도	924-2000 017-673-5212
11기	회장	신보연	535-0832 011-736-0834	24기	회장	이만휘	920-5010
	총무	한호석	031-264-3152 011-211-8121		총무	김태열	936-3900 017-673-5454
12기	회장	배양일	031-304-1083	25기	회장	강진석	017-673-5122
	총무	전대우	031-915-5067 010-2352-5008		총무	이정표	920-3124 017-679-0801
13기	회장	김양수	031-781-4434 011-9092-4434	26기	회장	정진기	920-3281
	총무	민양식	783-4865 010-3904-4865		총무	이요섭	920-3287



##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27기	회장	송진성	936-7500 017-673-5450	41기	회장	이형헌	920-3484
	총무	홍진기	019-267-3514		총무	이광조	933-3710
28기	회장	김주언	921-6450	42기	회장	이종서	019-692-9318
	총무	임성규	921-6240		총무	이동현	
29기	회장	이경남	920-3160	43기	회장	오동식	921-6211
	총무	한봉완	017-673-5079		총무	이종원	920-2295
30기	회장	강구영	920-2220 017-673-6553	44기	회장	고준기	921-5413
	총무	신완희	920-2320		총무		
31기	회장	이왕근	920-4420	45기	회장	이정운	017-675-6425
	총무	조승균	920-4150		총무	박진용	
32기	회장	윤석준	920-6332	46기	회장	김용진	942-3891
	총무	전종일	920-5061		총무	서정민	017-673-7005
33기	회장	최근영	920-2251	47기	회장	이영진	921-6311
	총무	김지원	920-1091		총무	문성훈	936-6366
34기	회장	박원서		48기	회장	고종진	937-4830
	총무	김학준	017-677-3434		총무		
35기	회장	최부용	920-1362	49기	회장	최창환	017-684-0374
	총무	박정욱	017-674-5722		총무		
36기	회장	차승천	920-3391	50기	회장	송준협	017-679-1724
	총무	장일기	933-2140		총무	전수진	017-685-5299
37기	회장	김선열	017-682-3710	51기	회장	유진규	930-5253 011-9152-0451
	총무				총무	김성경	017-681-6461
38기	회장	심재환	920-5941	52기	회장	유영광	017-682-6668
	총무	김봉주			총무	이동제	017-683-0452
39기	회장	여상기	017-684-6968	53기	회장	장지용	
	총무	한창욱	017-677-7032		총무	조상현	010-6414-0453
40기	회장	이선근	017-674-0421	※ 임원 변동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	김기운					



# “뿌리를 찾아서” 뒷이야기

## - 진해 공군사관학교 부지 표지석 설치관련 -

6·25 한국전쟁 당시 진해시 장천동에 주둔했던 공군사관학교 부지(현 진해시 풍호동 소재, 해군 교육사령부 예하 시운학부 주둔지)는 부대이전사업이 추진되어 '06년 전반기에 해군에서 진해시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곳에 공군사관학교의 발자취(성무지 제31호 “공군사관학교, 그 뿌리를 찾아서” 참조)를 남기기 위하여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군, 해군 및 진해시와 합 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에서는 표지석 모양을 여러 가지로 고안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교가”를,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 남하이동에 따라 이곳 진해시 장천동(현 진해시 풍호동 소재, 해군 교육사령부 예하 시운학부 주둔지)에 1951년 5월 1일부터 1958년 12월 18일까지 주둔하였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교육환경의 정비에 정진하며 1기생부터 10기생 까지 수학하였으며, 1958년 12월 서울 대방동 기지로 이전하기까지 만 7년 동안(1기~6기) 총 73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보라매의 꿈을 기르던 이곳에 공군사관학교 의 전통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훈적비를 세운다.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여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공군,  
하늘에 살고 하늘에 목숨 바치는 그날까지  
조국과 거래와 하늘에!  
하늘을 지키려는 우리의 굳은 뜻을 기억하고  
조국의 번영을 다함께 기원하자!

20 . . .

공군사관학교 재교생 일동

## ● 편집후기

13기 사관이 총동창회 운영을 맡으면서 성무지를 회원님들의 추억을 담고 근황을 전하며 총동창회 활동과 소식을 알리는 종합지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귀한 글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승배, 장덕수 편집위원에게 감사드리고, 연말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지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교재창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 기고안내

총동창회지인 “성무” 지는 연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논단,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시절의 에피소드, 전문분야 소개 및 생활 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3호 성무지 원고는 2006. 4. 3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 ● 총동창회 사무실 주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8-1(우 156-808)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공사총동창회.com>

E-Mail : [04airfa@hanmail.net](mailto:04airfa@hanmail.net)

일과 후 연락처

- 사무총장 : 011-701-0781, (집) 02-595-0781

- 설 대 리 : 016-9425-0516

**발행일 : 2006. 1.**

**발행인 : 이기현**

**편집인 : 강신혜**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